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올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심리 상담 / 치료  
**이경민**  
존스 홉킨스 대학원 석사  
571.240.6313  
rachellee@sunstonecounselors.com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10호

Wednesday, June 4, 2025 A

## 알래스카 원유 시추 허용

2천만 에이커 자연보호 구역  
원유 추정 매장량 87억배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의 자연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원유 시추 및 채굴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자연보호구역 2천만 에이커를 해제해 원유 등의 시추 위한 굴착과 채굴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작년 퇴임 전 알래스카 자연보호지역 2300만 에이커 중 1300만 에이커의 시추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300만 에이커는 인디애나주 전체면적과 맞먹는 광대한 구획이다.

이 보호구역은 원래 20세기 초 해군의 비상연료 공급시설로 계획했다가, 1976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방정부 소유지 내의 원유 시추를 허용했다.

연방지질조사국(USGS)는 자연보호구역 내의 원유 매장량을 87억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알래스카 정부는 이 곳의 시추가 본격화된다면 현재 일일 원유 시추량이 1만5800배럴에서 2033회계연도에 13만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원유 시추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로이터]

9600배럴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회사들은 2029년 예상 시추량을 6억배럴로 추정했다.

시행령은 60일간의 관보 게재와 청문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자연보호구역에 세부 시추 구획을 나눠 민간업체에 임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의 소송 장벽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

장 넓은 단일 국유지로,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 환경단체가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 당일, 자연보호구역과 또다른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 시추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시추 구획 임대 절차에 입찰 건수가 전무했다.

김옥채 기자

## 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국민 위대한 결정에 경의, 주어진 책임 최선을 다해 수행”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곧바로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1개월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이어진 대통령 부재 사태는 172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뤄졌기 때문에 60일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4일(한국시간) 오전 노태우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표 결과를 의결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확정됐다. 국회에서 이날 약식 취임식이 열리고 대통령은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해 주요 직책 인선과 1호 조치 등이 취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잔디마당에서 4만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치렀는데, 이번엔 국회 본청 내



부에서 대폭 간소화됐다. 취임식은 취임 선서 위주로 진행됐고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와 의전은 대부분 생략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49.42%의 득표율로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8.2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98%였다.

이준석 후보는 10%에 미달하고 선거과정의 역풍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지역별 개표 결과에서도 이 당선인은 영남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김 후보를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윤성민 기자

## 중국 제조업 위축, 33개월만에 최저치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 제조업 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3일 발표된 5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3으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분석과 함께, 시장 전망치 50.7을 크게 밑돌아 2022년 9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신 PMI는 민간에서 집계하는 것

으로 중국 정부 발표보다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정부가 5월31일 발표한 5월 제조업 PMI도 49.5에 머물렀다. 제조업 공급과 수요가 해외 수요 감소로 크게 위축돼 경기 하방 압력이 이전보다 훨씬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중 양국의 관세전쟁이 한풀 꺾이긴 했으나 불안한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른 시기 내에 주목할만한 반등을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미국도 타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발표한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부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 경우 추가적인 달러가치 하락이 불황국면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VA 페어팩스 카운티 실직자 46% 증가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월 페어팩스 카운티 실업자가 2만499명으로 작년 4월의 1만4015명에 비해 46% 증가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4월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2.2%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북버지니아 전체적으로는 4월 실업자는 5만617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감축 기조에

따라 공무원 해고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버지니아 전체 실업률도 3.3%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작년 평균 실업률은 2.86%였다.

워싱턴 메트로지역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2.5%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상태다. 워싱턴 메트로지역 실업자는 12만391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변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 트럼프, 불체자 테러에 격앙

“테러리스트 가족·동조자도 색출한다”

불법 체류자가 일으킨 화염병 투척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한층 강경 기조를 띠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불타에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용의자는 미국을 심하게 훼손한 바이든의 터무니없는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 들어왔다. 이제 그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왜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법적인 반미 급진주의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테러리스트는 물론 가족과 동조자들까지 찾아내 미국에서 추방하겠다고 했다. 루비오



콜로라도주 불타에서 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화염병 투척 사건 현장에 경찰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자를 받아 여기 체류 중인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테러리스트 동조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앞서 콜로라도주 불타사에서 전날 열린 친이스라엘 인질 추모 행사장 부근에서 이집트 국적의 불법체류자 모하메드 솔리먼(45세)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져 총 12명이 화상 등 상처를 입었다. 솔리먼은 범행 직후 자신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시온주의자, 너희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솔리먼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모든 시온주의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주 검찰은 솔리먼에게 1급 살인 미수 혐의 16건을 비롯해 방화 기기 사용 2건, 방화 기기 사용 미수 16건 등을 적용했다. 유죄로 확정되면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최대 384년, 방화 기기 사용으로 최대 48년, 방화 기기 사용 미수로 최대 19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집트 태생의 솔리먼은 2022년 8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비자가 만료됐지만 노동 허가를 받아 체류를 연장했고, 그마저 지난 3월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김형구 기자

## 펠그랜트 혜택 축소 추진

〈연방정부 학비 보조〉

금액 줄이고 자격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펠그랜트(Pell Grant·연방정부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보조 프로그램)’ 최대 지급액을 줄이는 등 혜택 축소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예산 문서에 나타난 삭감안에는 2026~2027학년도부터 펠그랜트 최대 지급액을 기존 7395달러에서 5710달러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의회예산국

(CBO)은 올해 초 펠그랜트 프로그램이 2026~2027학년도 약 100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학 등록 학생 수가 늘며 펠그랜트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증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격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하원 공화당은 예산 부족에 직면한 펠그랜트 프로그램에 향후 3년 동안 10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펠그랜트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0학점(학기당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학생의 가족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펠그랜트를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학생지원지수(SAI·학생과 그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학비를 수치로 나타낸 것)가 최대 지급액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300만 명에 대한 펠그랜트 지원금이 줄고, 120만 명은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 워싱턴 이번주 90도 육박하는 무더위

5·6일 최고 88~91도

목요일인 5일 워싱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를 나타낼 것이라고 국립기상청(NWS)이 예보했다. NWS가 새로 발표한 4~8일 예보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의 기온이 평소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높다. 최근 최고 기온이 60~70도를 오르내리던 것이 4일부터는 90도에 육박하다가 주말에 소나기가 내린 후 다시 80도 초반으로 푹 내려갈 전망이다. 메트로 워싱턴 기상청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더운 여름 날씨가 확연하게 느껴지다가, 한 차례 폭풍이 지나

갈 토요일에 다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6일 밤부터 7일 사이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55%에 달한다. 더위와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는 예년보다 좀더 무더운 여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인들은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성한 기자

## 워싱턴 지역 단신

### 양초만 흡친 강도조직 검거, 피해액 3만2천불 이상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이 양초 판매 업소 16곳에서 수만달러 어치의 양초를 흡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각 업소는 최소 600달러에서 최대 43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총 피해

추산액은 3만2천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워싱턴 거주자로,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국은 연방마살국과 공동으로 지명수배자 검거작전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 강도살인 10대 커플 기소, 차량에 결박 후 불태워

메릴랜드 앤 아룬델 카운티 경찰국이 지난달 24일 발생한 에드워드 코자(67세) 살인사건 용의자 두 명을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용의자 조나 폴(18세)와 카일리 테이크스(18세)은 고교 12학년생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조경업 물품 판매 업소에 침입해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닥트 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안에 태운

후 개스를 붓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 방화가 피해자 사망 전에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용의자들은 일주일 전에도 한 식당에 침입해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당국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베스프로 샵’ 야구모자가 신품이라는 사실을 착안해 역추적한 한 결과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포춘 500대 기업 워싱턴지역 20개

워싱턴 지역 기업 20개가 경제잡지 포춘 500대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버지니아 알링턴에 위치한 아마존이 2위로 가장 높았다. 아마존의 작년 매출액은 5750억 달러였다. 이밖에도 국책모기지기

관 페니메이(27위), 프레디맥(36위), 보잉(52위), RTX(55위), 캐피털 원은행(91위), 제너럴 다이내믹스(104위), 노드럽 그루먼(109위), 단허(153위), 메리엇 호텔(173) 등이 200위권에 안에 이름을 올렸다.

### 육군이 DC 군사 퍼레이드 도로 보수 책임

워싱턴DC 도심에서 오는 6월14일 육군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된 가운데, 무거운 군장비 운용으로 인한 도로 파손 비용을 육군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시정부는 1600만달러 상당의 비

용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퍼레이드에는 M1 에이브람스 전차 24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24대, 4대의 M109 팔라딘 자주포 중 무장 장비가 동원돼 도로 파손이 예상된다.

### 선호 정당 없어도 예비경선 참여할 수 있어야

메릴랜드 주민 도나 사우어버거가 무당파 유권자의 예비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원래 민주당원이었으나 양당 체제에 실망해 선호정당을 포기

했다. 메릴랜드는 유권자 등록부에 선호정당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예비경선 투표가 불가능하다. 그는 이같은 법조항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6월 4일(수) 87-65**

|       |       |  |        |       |  |
|-------|-------|--|--------|-------|--|
| 5일(목) | 87-65 |  | 8일(일)  | 83-64 |  |
| 6일(금) | 86-66 |  | 9일(월)  | 84-67 |  |
| 7일(토) | 80-64 |  | 10일(화) | 81-65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1

석

5

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5 in 1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라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VA 연방하원11지구 보궐선거 9월9일

## 한인 2명 출마선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오는 9월9일 버지니아 연방하원 제11지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제리 코넬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다.

선거일 공고와 함께 일정도 차례로 확정됐다. 선거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7월11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모두 10명의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워킨슈우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킨슈우 후보

는 코넬리 의원 사망 전 지지를 획득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스텔라 파카스키(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조직력을 앞세워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코넬리 의원을 제외한 버지니아의 유력 정치인 다수가 파카스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한인 정치인 아이린 신(민주) 하원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신의원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사람들을 선출하거나, 파시스트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출신의 한인 2세 덴리(Dan Lee)도 출마를 선언했다.

이씨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기업을

운영하며, 맥클린의 응급구조대 자원 봉사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의료업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개혁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는 작년 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던 마이크 밴 미터가 재도전한다. 그레이트 폴스의 은행 기업이 출신의 네이던 레드리도 출마한다.

제11지구는 페어팩스 카운티 대부분과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보궐선거 승자는 선거일 2주 후 정도에 취임 선서와 함께 코넬리 전 의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옥채 기자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변화의 길'을 모색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워싱턴지역 10여개 보수단체 ‘변화’ 모색

### 한미동맹 강화 노력 다짐

6.3 조기대선이 끝난 가운데 워싱턴 동포사회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미래를 모색하는 모임을 2일 저녁 애난데일 한인타운 소재 한강식당에서 가졌다.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회(북미주 총회장 리처드 명)가 주최한 이날 모임에는 김유숙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이광운 메릴랜드 상록회장, 북한 선교회 배현수 목사, 셰이브 코리아

김경화 목사, 김병직 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유선영 전 대한민국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장, 마이클리 전 CIA 요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6.3 조기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한 기자

## 미주총연, 한국 사무소 설치 예정

### 제3차 임시총회 성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 이하 미주총연)는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미주총연 일부 정관 개정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현장 참석자 92명, 화상 참여자 51명 등 총 143명이 참여해 성원을 충족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한국 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과 윤

리위원회 장제 규정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 워싱턴 지역에서는 안수화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한 기자



미주총연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VA 라우던 카운티 특정 인종 표적 단속 논란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에서 라티노를 대상으로 표적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라우던 카운티 셰리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교통단속을 위한 정차명령 건수는 모두 7088건이었다. 라우던

카운티는 경찰국이 없으며, 셰리프국이 경찰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시민단체 뉴 버지니아 머저리리는 “작년 1분기 4290건보다 65%가 증가했는데, 이민 커뮤니티를 상대로 표적단속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백인 정차명령 단속 건수 3343건 중 티켓 발부는 2368건, 히스패닉은 1194건 중 759건, 흑인은 846건 중 566건이었다. 라우던 카운티의 백인, 히스패닉, 흑인 비율은 각각 51.3%, 14.2%, 8.4%다.

김옥채 기자

## 쓰레기 소각으로 암 급증

### MD 몽고메리 카운티

### 군수 공약 못미쳐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가 디커슨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을 계속 유지할 방침을 세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마크 얼리치 군수가 2018년과 2022년 선거 당시 소각장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쇄 일정을 미루더니, 결국 거액의 예산까지 반영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쓰레기 소각장 유지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57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이 소각장은 1995년부터 매년 57만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해왔다.

환경단체는 소각장에서 수은, 일산화탄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으로 사망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앓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소각장이 위치한 디커슨 지역 주민들의 암과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핀들레이 슈가로프 지역 시민연맹 회장은 “소각장 폐쇄 문제가 항상 주택, 학교, 공공 안전 등의 이슈에 밀려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우리는 더이상 참지 못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 김진옥

####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 결혼해듀노

DUO NY 212-915-7115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 FREE

####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LA한인타운 초등학교 10년 새 반토막

60% 이상 급감 학교 많아  
교육구 통폐합 등 고려도  
한인 외곽 지역 이주 반영

가주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 수가 8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한인타운 내 주요 초등학교의 경우 10년 만에 등록 학생 수가 반 토막이 나는 등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가주교육부에 따르면 현재(2024~25학년도) 가주에는 총 580만 6221명

(TK~12학년)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 2016~17학년도(628만 235명)를 기점으로 8년 동안 약 8%(47만 4014명)가 줄었다. 학생 감소세는 초등학교가 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LA 한인타운 초등학교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어 이중언어반이 있는 코헨가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는 355명으로 10년 전(2014~15·567명)에 비해 37%가량 급감했다.

재학생 420명의 호바트 초등학교 역시 10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찰스 H. 김 초등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483명이 등록돼 있지만,

10년 전(700명)에 비하면 30% 이상 감소했다. 이밖에 윌튼플레이스초등학교(780명→297명·62% 감소), 로버트 F. 케네디 초등학교(433명→170명·60% 감소), 마리포사나비초등학교(254명→85명·67% 감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윌셔파크초등학교(564명→329명·41% 감소)도 예외가 아니다.

LA통합교육구(LAUSD) 제니퍼 김 교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구인데 전체 학생 수가 10년 사이 20%나 줄었다”며 “저출생, 이민 감소, 높은 물가로 인한 타주 이주 등이 맞물린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열 기자



LA 한인타운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 정문에는 학생 등록을 홍보하는 내용의 배너가 게시돼 있다.

## ‘일하는’ 메디칼 도입하면 백만명 자격 상실

월 80시간 노동·학업 증명해야  
일용직·자녀양육 등 자격 박탈  
근로 독려, 재정적자 감축 방안

메디케이드 성인 가입자 대상으로 월 80시간 이상 노동 증명을 의무화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비영리매체 켈매터스는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달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학업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약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독려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매체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주 메디칼 가입자 상당수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싱크 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2026년 메디칼 가입자 예상 수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주에서만 120~140만 명 이상이 메디

칼 자격을 잃을 것으로 봤다. 공화당 측은 일정 소득창출이 가능한 노동능력증이 무분별하게 메디칼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CBS뉴스 인터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영리기관 KFF에 따르면 가주 등 메디케이드 가입자 3명 중 2명은 이미 정직원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일용직 청소부, 정원사, 건설노동자 등은 메디케이드를 잃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 카운티 공보국장에 한인 임명

기자 출신 수젯 리 니드리치  
노스캐롤라이나 메클렌버그

방송 기자 출신 한인이 노스캐롤라이나 한 카운티 정부 공보국장에 임명돼 화제다.

메클렌버그카운티는 2일 수젯 리 니드리치(Suzette Rhee Nedrich·사진)를 공보국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니드리치 국장은 2022년부터 같은 부서에서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부서 간 협업과 주요 프로젝트 기획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승진했다.

9살 때 버지니아로 이주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 방송 기자와 앵커로 활약했다. 특히, 공영방송 책임 프로듀서, 샐럿 시정 채널(GOV Channel) 앵커, 메클렌버그카운티 TV의 ‘왓츠트렌딩(What’s Trending)’ 진

행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의 언론 경력은 버지니아 AP 올해의 방송기자상, RTNDA 수상, 총기 폭력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제너레이션 언더 파이어’로 받은 에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저널리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니드리치 국장은 민간 및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과 기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넓혀왔다. 그는 이번 임명에 대해 “우리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인성 기자



## 성폭행 혐의 징역 378년 남성… 16년 만에 무죄

입양딸 성폭행 누명 밝혀져  
남친과 이별 양부 탓 화풀이

미국에서 입양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한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현지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사진)가 수피리어법원의 무죄 판결으로 16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78년형을 선고받고 2009년 수감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수피리어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를 주장한 딸이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세 때 나와 성관계를 가

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세가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사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고 진술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반박하는 등 내용이 엇갈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그에게 2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술 기자



## 상의총연 총회장에 황병구 취임

28대 이어 30대 수장 맡아  
“지역 상의 활성화 힘쓸 터”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총연) 명예회장이 다시 한번 회장직을 맡았다.

이경철 총회장은 지난달 31일 애플 랜타 들루스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연 정기총회에서 황병구 전(28대) 총회장을 30대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총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황병구 전 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6월부터다.

황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지역 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연이 지역 상공회의소를 찾아가 지원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공유했다.

또 차세대 사업인 육성 발굴 사업, 한국 기업 제품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 반품 악용 급증... 업체·소비자 피해

전체 반품액 중 1010억불 사기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전체 반품 규모는 7430억 달러로 이 중 약 1010억 달러가 사기로 추정된다.

반품 사기는 단순히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재고 계획과 운영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매업체들이 무료 반품, 30~60일 내 반품 가능 등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소비자 유입은 늘었지만,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반품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빈 상자를 반품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반품 전자제품의 주요 부품을 뜯어내는 등 사기 행각이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



관대한 반품 시스템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PS의 아마존 반품 안내문.

박낙희 기자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워드로빙(wardrobing)’이다. 일회성 사용을 위해 의류를 구매한 뒤 사용한 의류를 다시 반품하는 방식이다. 의류 소매업체

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문제로 외형상 사용 흔적이 없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

또 다른 수법은 ‘빈 상자(empty box)’ 사기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을 때 제품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빈 상자를 반품하는 방식이다.

반품 물품을 무게 측정하지 않고 환불 처리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사기를 뒤늦게야 인지하게 된다. 전자제품 관련 사기 수법으로는 ‘브릭킹(bricking)’이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주요 부품이 제거된 채 반품되어, 이를 다시 판매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는 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로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

# 트럼프 공식 사진 4개월 만에 교체

파란색-빨간색 넥타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진이 4개월여만에 교체됐다.

2일 CBS방송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공식 사진을 사무실에 걸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식 사진은 모두 백악관의 수석 사진가 대니얼 토크이 촬영했다.

지난 1월 취임 직전에 발표된 첫 공식 사진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요소에선 다소 차이가 발견

됐다. 새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어두운 배경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다. 첫 사진에선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또한 새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는 명암이 강조됐지만 첫 사진에선 얼굴 전체적으로 조명을 사용해 그림자가 없었다.

사진 배경으로 걸렸던 성조기가 사라진 점도 특징이다.

거의 무표정한 얼굴 모습은 새 공식 사진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공식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머그샷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다.

CBS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만간 연방 정부 청사와 사무실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공식 사진을 새 사진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사진을 교체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장구슬 기자

# “커피, 건강한 노화에 도움”

여성 5만명 30년 추적 결과 보니

적정량의 커피가 여성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사라 마다비 박사 연구팀은 여성 4만7513명의 데이터를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한 여성은 ‘건강하게 늙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노화’는 암, 뇌졸중, 제2형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고 신체 기능이 정상이며 인지 장애 없이 정신 건강이 양호한 경우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미국 보건당국과 학계가 미국의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 중인 ‘간호사건강연구’(NHS)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들은 1984년부터 식생활, 생활방식, 건강 상태를 묻는 설문에 주기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건강한 노화’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3706명이었다. 이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커피로 하루 평균 카페인 315mg을 섭취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톨사이즈 아메리카노’(카페인 150mg 함유) 2잔가량, 작은 커피잔으로는 3잔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연구팀은 중장년 여성이 ‘작은 잔’ 기준으로 커피 한 잔을 더 마실수록 ‘건강한 노화’ 확률이 2~5% 높아졌으며, 이런 확률 상승 효과는 최대 5



잔을 마실 때까지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로는 ‘건강한 노화’ 효과가 없었다. 커피가 아닌 ‘차(茶)’도 건강한 노화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콜라로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엔 오히려 건강한 노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체중, 흡연 여부, 음주 습관, 신체 활동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과 금연, 건강한 식단 등의 요인과 비교했을 때 커피 섭취의 이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커피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올랜도에서 열린 2025 미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됐다.

커피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다. 적정량의 커피는 파킨슨병, 제2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춰주고 일부 암의 발생 위험도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혜 기자

# 트럼프, 성전환자 육상대회 우승에 “대규모 벌금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열린 캘리포니아주 여자 고교 육상대회에서 성전환자가 우승한 것을 두고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루스소셜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생물학적 남성이 캘리포니

아주에서 열린 여자 주대회 결승전에 출전했고 대승을 거뒀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소속 대권 잠룡인 개빈 뉴스کم(Newscum)이라고 지칭하며 “그가 완전히 알고 있듯이 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کم은 주지사의 성인 뉴스کم(Newsom)과

쓰레기를 의미하는 스크(scum)를 합친 말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AB 에르난데스(사진)가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우승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남성과 여성 2가지 성(性)만 공식적으



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나 가치를 배척하

고 관련 행정명령까지 서명했다. 이번 육상대회 결승을 앞두고도 에르난데스의 결승전 출전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루스소셜에 “남성으로서 그는 평균 이하였다. 여성으로서 이 성전환자는 사실상 무적”이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으며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예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풀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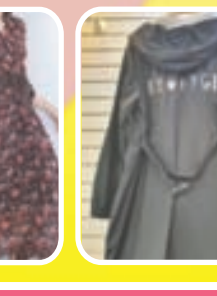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리조 물)  
웨이리노레방

40  
300m  
Pine Orchard Ln  
뉴타운

미리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우크라판 ‘진주만 공습’ 이어 크림대교 교각 수중 폭파

우크라, 러 주요 육상보급로 타격  
‘거미줄 비밀작전’ 전말도 드러나  
“조립주택 배달” 러 언론사속인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에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습을 감행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수중 폭발물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크림대교(케르치해협 대교)의 수중 교각 하나에 위력이 TNT 1100kg급인 폭발물을 매설해 폭파하는 특수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SBU는 “폭발은 다리 지지대의 수중 기둥을 해저 수준에서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현재 크림대교는 치명적인 손상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번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대교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3일 크림대교를 수중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공격한 세번째 사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에도 크림대교를 공습했으나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건설한 19km 길이의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육상보급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소속 요원을 체포했으며 이 요원이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 “한국 수개월 탄핵 후유증… 이재명 큰 차이로 이길 듯”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3일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F)가 발표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NYT는 “수개월에 걸친 정치적 혼란 끝에 중도좌파 성향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큰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선거 당선자는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하고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조율해야 하는 등 막중한 과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인 한국은 수개월 동

안 탄핵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했다.

AP는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파문 이후 보수 진영에 대한 대중의 좌절감을 타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중대한 순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심화된 국내 분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는 새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속보로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구술 기자

##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쉬치량 급사…사인은 안 밝혀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권 장악을 도왔던 쉬치량(許其亮) 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일 베이징에서 병사했다. 75세.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는 3일자 1면 하단에 쉬 전 부주석의 부고 기사를 싣고 “중국공산당의 우수 당원, 오랜 검증된 거친 충성스런 공산주의 전사, 무산 계급 군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탁월한 영도인”이라고 썼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관영 매체의 부고에 앞서 쉬의 사망 소식은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기자 출신인 자오란젠(趙蘭健)이 처음 X(옛 트



3일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부고를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뉴스인 신원렌보가 보도했다.

[사진 CC-TV 캡처]

위터)를 통해 알렸다. 중국 내에선 X와 같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쓰려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하는 수밖에 없다. 즉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의 급사에 중국 내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친중 성향의 홍콩 성도일보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쉬는 이른 아침에 조강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여서 사인을 놓고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이다.

쉬는 지난 1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국무원 춘절(음력설) 단배식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 산둥성 린취(林欸)가 고향은 그는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2007년 상장(대장)에 오르며 공군사령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열린 17차 당 대회에서 군통수기구인 중앙군사위의 위원에 선출됐다.

이어 2012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보임됐다. 같은 달 개최된 1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위원 겸 중앙군사위 제2부주석으로 승진했다. 2017년 19차 당 대

회에서 제1부주석에 올랐다.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군사위 부주석에서 물러났고, 2023년 은퇴했다.

고인은 군사위 부주석으로 부임하는 10년간 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의 군권 장악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기존 인민해방군의 4개 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를 중앙군사위 산하 15개 기능 부서로 분리하고,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재편, 육군사령부·로켓군·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의 군 개혁을 이끌었다.

또 시 주석이 강조한 군내 부패 척결도 도왔다. 실제로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귀보송과 쉬차이허우가 퇴임 후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신경진 기자

## 이스라엘군, 또 가자 식량 배급소서 발포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운영하는 가자 남부 라파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잇따라 연속 총격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1일 사건에 대해선 허위사실이 라며 부인했으나, 3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경고 사격’이었다며 발포 사실을 인정했다.

CNN방송 등 외신은 3일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주민 27명이 숨지고 수십명

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라파의 GHF 배급소 근처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주민 27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칸유니스의 나셰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겼다. 한 의료 관계자는 “너무나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환자 한사람이 숨을 거둬야 다음 사람을 진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구호 허브로 향하던 중 사망한 주민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스라엘군(IDF)은 발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다가오며 위협을 가했다. 하지

만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쪽으로 발포했다”며 사망자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인근에서 사상자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소속 20대 장병 3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라파의 배급소 근처에 목격한 주민들을 향해 이뤄진 발포로 31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모두 허위”라고 일축하는 한편, 의문의 무장 세력이 일부러 민간인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슨 하이, 프로스트미드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2. **첸틀리 하이 상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tees corner

3. **첸틀리 하이 상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4. **센터빌 상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놀라 패널, 6,228sqft

5. **센터빌 상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매인/ 풀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6. **애난데일 상글** \$74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 3, 화 3, 카보치, 세차장, 드레싱룸, 4400sqft, 방 2,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동네에 모든 생활시설,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395/236/495/95/66

7. **우드브리지 상글**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좋은 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8.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9.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밀라스 공항 **Coming Soon**

10. **게인스빌 골프 상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상글 **Under Contract**

11. **맥클린 콘도** \$485,000  
밝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 2, 테라스 방 2, 화 2, 1335sqft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Under Contract**

13. **첸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점

15.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1. 방 1, 화 1, 762sqft, 2. 방 2, 화 2, 1,050sqft, Mican High, RT 495,66/267/77, Tysons Galleria 옆 **Coming Soon**



# 6월 프로모션

기간: 5.29.2025-6.26.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6월 내 설치

## 다양한 고객 혜택과 타사제품 보상 특별 혜택!

- ✔ 일시불 최대 **25% off**
- ✔ 렌탈 계약시 최대 **5개월 면제**

고민 끝에 바꾸셨다면, 더 풍성하게 챙겨드릴게요.

###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240-595-2257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AC-AA091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쿡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이재명, 수도권·4050이 승리 견인… 보수성향 60대도 박빙

## 개표·출구조사 결과 분석

이재명, 40대~50대서 압도적 우위  
오전 1시10분 현재 경기·인천 과반  
“계엄에 실망, 60대 일부 돌아선 듯”  
출구조사 예측보다 실제 격차 줄어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3년 전 대선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의 실패를 반전시키며 대권을 거머쥐기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의 선전이 주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집계에 따르면 4월 오전 1시10분 기준 이 당선인은 48.31% 득표율을 기록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3.0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7.58%)를 앞섰다. 투표 종료 뒤 네 시간이 되기도 전인 전날 오후 11시50분 즈음 지상파 방송에서 ‘당선 확실’이라고 알렸을 정도로 조기에 승부가 갈렸다.

수도권에서의 선전은 이 당선인의 승리를 뒷받침했다. 이 당선인은 서울에서 46.77%의 중간득표율을 기록해 김문수(42.77%) 후보를 4%포인트 앞섰다. 지난 대선에서 이 당선인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4.83%포인트 차로 패했는데, 이번 대선에선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경기(이재명 50.17%, 김문수 40.57%), 인천(이재명 50.48%, 김문수 40.43%)에서의 이 당선인 득표율도 과반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기에서 5.32%포인트 앞서고, 인천에선 1.85%포인트 차로 박빙 우세였지만 이번엔 여유 있게 격

차를 벌렸다.

충청에서도 이 당선인은 전 지역에서 앞섰다. 대전(이재명 48.29%, 김문수 41.63%), 충남(이재명 46.93%, 김문수 44.78%), 충북(이재명 46.72%, 김문수 44.73%), 세종(이재명 56.75%, 김문수 32.61%) 등 충청권 전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 대선 당시엔 충청에서 표를 크게 잃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보수 텃밭’ 강원도의 민심도 달랐다.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원에서 12.46%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이번엔 이재명 44.01%, 김문수 47.71%로 격차를 상당히 줄였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김 후보가 선전했다. 부산(김문수 53.77%, 이재명 38.37%), 경남(김문수 54.27%, 이재명 38%), 울산(김문수 48.87%, 이재명 41.82%)에서 김 후보가 여유있게 앞섰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20.1%포인트, 울산에서 13.62%포인트, 경남에서 20.86%포인트 차로 이 당선인을 크게 이겼던 것보다는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예측에 비하면 이 당선인과 김 후보의 실제 득표율 격차는 줄었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조사에서 이 당선인은 51.7%로 민주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고, 김 후보(39.3%)와의 격차도 12.4%포인트로 전망됐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 두 사람의 득표율 차이는 한 자릿수를 줄곧 유지했다.

연령별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이재명 41.3%, 김문수 30.9%), 30대(이재명 47.6%, 김문수 32.7%)에서 이 당선인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은 크게 앞섰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박빙이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 당선인은 40대(72.7%)와 50대(69.8%)에선 압도적 지지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70대 이상(64%)에서 앞섰다. 눈에 띄는 건 그간 전통적 보수층으로 인식됐던 60대 민심이였다. 60대 예상 득표율은 이재명 48%, 김문수 48.9%로 박빙이였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선 더블스코어(윤석열 64.8%, 이재명 32.8%)에 가까운 이 당선인의 열세였는데 간발의 차로 좁힌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 성향이 강한 586세대가 60대로 편입되고, 12·3비상계엄 사태에 실망한 60대가 돌아선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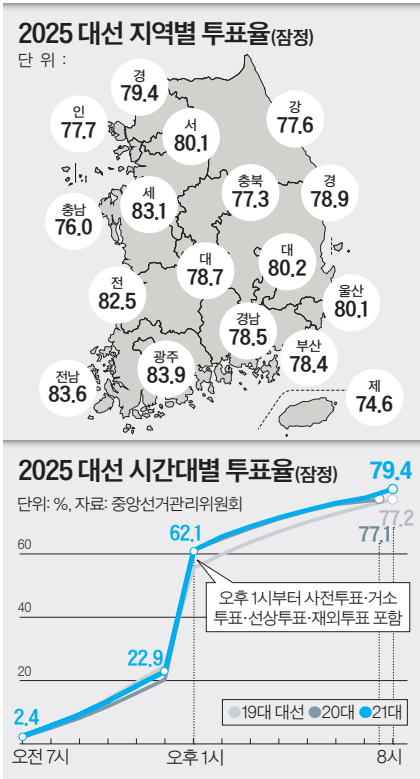
성별 출구조사 결과는 여성에서 이재명 55.1%, 김문수 39.2%, 이준석

4.3%로 이재명 당선인의 우위가 두드러졌고, 남성에선 이재명 48.3%, 김문수 39.4%, 이준석 11.1%였다.

다만 20·30대 남성에선 반(反)이재명 경향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남성에서 이준석 후보(37.2%)의 예상 득표율이 가장 높았고, 김 후보(36.9%)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당선인은 24%에 그쳤다.

30대 남성에선 이재명 37.9%, 김문수 34.5%, 이준석 25.8%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예상 득표율 합이 60.3%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에서 36.3%, 30대 남성 42.6%를 기록했는데, 이번 출구조사에선 외려 예상 득표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게 등을 돌린 20·30대 남성의 표심이 이 당선인이 아닌 이준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20·30대 여성의 출구조사 표심은 남성과 정반대였다. 20대 이하 여성에선 이재명 58.1%, 김문수 25.3%, 이준석 10.3%, 30대 여성에선 이재명 57.3%, 김문수 31.2%, 이준석 9.3%로 이 당선인의 예상 득표율이 과반이였다.

출구조사는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가 구성한 ‘공동 예측조사 위원회(KEP)’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손국희 기자

## ‘당선 확실’에 등장한 이재명, 국회 앞 특설무대에서 수락연설

이재명 연호 시민들에 손 들어 화답  
새파란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 달아  
민주당, 출구조사 나오자 축제분위기  
박찬대 “국민들, 내란세력에 불호령”

TV 개표 생중계가 일제히 ‘당선 확실’ 자막을 띄운 3일 오후 11시45분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을 나와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이재명”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어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선부르는 하지만, 만약 이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짧막하게 소감을 전했다. 단정히 빚어 넣긴 머리, 진화색 정장에 새파란 넥타이를 매고 양복 깃에는 태극기 배지를 단 차림이였다.

김혜경 여사는 차분한 진배이지 바지 정장을 입고 남편과 동행했다. 이 당선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할 때 함께 고개를 숙였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남편을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지지자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 김 여사에게 건넸다.

이 당선인 부부는 곧장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이동해 참모들을

격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앞 도로에 마련한 별도의 개표방송 시청 공간으로 이동해 당선 수락 연설을 했다. 이곳에선 오후 10시부터 지지자 찬조연설과 공연이 이어졌고, 당선인이 지난 22일간 이어온 선거운동 영상도 상영했다.

이날 민주당은 투표가 마감되는 시각부터 축제 무드 그 자체였다. 오후 8시 정각 민주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기쁨의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됐다, 됐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12.4%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화면을 주시하고 있던 80여 명이 일제히 밝은 표정으로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만

세와 쌍따봉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쪽에서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발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결과는 국민께서 내란 세력에 불호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황실은 이날 일찍부터 활기차고 분주했다. 20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에 분위기도 한껏 고무됐다. 선대위 관계자와 주요 당직자들은 오후 7시를 조금 넘은 시간부터 속속 상황실로 모여들었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1강’ 구도를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조기대선이 “상대적으로 치르기가 쉬운 선거”(전략통 의원)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막판까지 득표율 50% 돌파 여부, 2위 후보와의 격차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만년 힘지로 여겼던 영남 지역에서 이번 기회에 새 기록을 세워보겠다는 의지도 컸다. 그래서 이 당선인이 선전하는 지역별 득표율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곳곳에서 안도를 넘어서 감탄이 쏟아졌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당선인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장내가 크게 술렁였다.

앞서 이 당선인은 이날 3건의 페이스 북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했다.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었다.

심세록·김나한·조수빈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http://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제 23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출정식**

그동안 저희 워싱턴 DC 체육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워싱턴 DC 체육회에서는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열리는 달라스 미주 체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인 미주 체전은 재미교포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 미주내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체육회 기금 모금행사를 가지려고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저희 협회가 여러 청년 및 일반 교민들과 함께 본 미주체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다가서서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저희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시** 2025년 6월 8일 (일) 오후 5시

**장소** **올네이션스 교회**

8526 Amanda Pl., Vienna, VA 22180

**연락처** 703-220-4148 (사무총장 권미애)  
kasagwdc2023@gmail.com



## 워싱턴 DC 체육회 가맹단체

검도협회 이성규 / 골프협회 박태영 / 농구협회 마커스 오 / 배구협회 잔 박  
배드민턴협회 윤주연 / 볼링협회 이진우 / 사격협회 지대성  
수영협회 크리스 박 / 양궁협회 김백제선 / 족구협회 민경태 / 탁구협회 제이슨 최  
태권도협회 엄일용 / 테니스협회 유학수 / 소프트볼협회 황정민 / 육상협회 김유미  
유도협회 조광제 / 펜싱협회 김기현 / 씨름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재미 워싱턴 DC 체육회장 김유진**

선수단장 김덕만 | 부단장 정종웅

수석부회장 양광철 | 부회장 유태규 | 사무총장 권미애



#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 국정원장엔 이종석 검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들도 이르면 이날 저녁 발표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이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 시 인사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3선·충남 아산 을) 의원, 첫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민석(4선·서울 영등포 을) 의원이 유력하다.

강 의원은 계파색이 없다는 평가였지만 경선 캠프에 합류해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이끌었다. 당 수석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해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달 29일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하지 정치를 했겠냐”라며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27’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총선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아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차기 대선 준비 조직 ‘집권플랜본

부’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전략과 집권 초반기 구상을 수립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파’로 분류됐던 이 전 장관은 이 당선인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대북·안보 정책 분야 멘토 역할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이 당선인의 외곽 조직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2·3차장을 지낸 김준환 전 차장도 국정원장 후보군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위 의원은 외교부 북미국장을 거쳐 한반도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북미통’으로 후보시절부터 이 당선인의 대미 네트워크를 다져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조현 주유엔 대표부 대사의 기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외교부 장관을 맡을 것이라는 게 이 당선인 주변의 평가다.

김현종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으로 신설되는 통상보좌관 임명이 유력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외의 관세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 전달기구를 뒤편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정책실장으로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경제 관료 출신이 거론된다. 다만 이 당선인이 대선 정책을 총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의 임명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및 사법부 개혁 과제를 책임질 민정수석에는 검사장 출신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민정비서관에는 공안 검사 출신인 이태형(24기)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기용이 유력하다. 전북 남원 출신인 오 변호사는 이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대통령과 국회 관계를 조율할 정무수석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 대통령실의 얼굴인 대변인에는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의원이 발탁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당선인이 시만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할 때부터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할 총무비서관 또는 국정상황실장 후보로 오르내린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은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선대위 메시지팀장은 의전비서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오현석·하준호

강보현 기자

# 이재명, 오전 11시 국회서 취임식

## 주요 인사 발표도 예정

이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참모진을 격려했고, 여의도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0대 대선 땀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에 당선되고, 이후 두 번 연속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며 야당 지도자로 입지를 다져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강력한 차기 리더로서의 위상을 키워 왔다.

이 당선인은 과거 소년공이었다.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열세 살부터 6년간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사장이 도망가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고 당시를 회고하곤 했다. 팔 장애를 얻은 것도 그때였다. 이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와 대입 학력고사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인권변호사·성남시장·경기지사 등을 역임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취임식 형식에 대한 질문에 “취임식보다는 취임 선서식이 될 텐데 최대한 짧은 시간내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국립현충원도 참배한다. 이날 오후엔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정원장 후보자 등을 지명할 예정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당선 축하 행사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다.

3일 오후 8시 투표 종료에 맞춰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당선인은 51.7%의 예상 득표율로 2위인 김 후보(39.3%)를 12.4%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7.7%였다. 출구조사에선 지역별로 봤을 때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제외하곤 이 당선인이 모두 앞섰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이 당선인이 우위였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로 20대 대선 때의 77.1%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광역자치구별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 83.9%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74.6%로 가장 낮았다.

윤성민·윤지원·김정재 기자

# “우리 재맹이가 1등이다”…축배 든 안동 주민들

## 고향 예안면 도촌리 가보니

경로당 모여 출구조사 보며 환호  
초등교 선배 “재맹이옛날부터 똑똑”  
주민들 “관광객 많이 오길 기대”

“우리 재맹이가 1등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8시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경로당이 떠들썩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치러진 대선 투표가 마무리되고 지상파 3사가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민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하면서 기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이 당선인이 51.7%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7%로 뒤를 이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3%로

집계됐다.

고향 출신 이 당선인을 응원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였던 도촌리는 흥분에 휩싸였다. 출구 조사 발표 후 한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막걸리로 축배를 들었다. 주민 신상준(67)씨는 상기된 얼굴로 “마을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니 정말 흥분된다”며 “앞으로 우리 마을에 관광객도 오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사래실·평지마·새못·덧골·지통마·길골 등 자연부락으로 이뤄진 도촌마을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지통마(지촌·紙村)에서 1964년 12월 태어났다.

이 당선인이 쓴 자서전 『이재명의 굵은 팔』에서도 도촌마을에 대한 회고가 남아있다. 그는 “도촌리는 산에서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깊은 산촌이었다”고 마을을 기억했다. 병원을 갈 때는 산을 넘고 한참 걸어 버스를 탄 뒤

이웃 지자체인 영양군까지 가야 해 한 나절이 걸릴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다고 한다. 지금도 지통마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오지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진짜 살다 보아 뽀이 다 있데이”라며 기뻐했다. 이 당선인이 나온 삼계국민학교(현재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선배인 김제호(63)씨는 “재맹이는 옛날부터 똑똑했네. 대통령 일도 정말 잘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조성호(63)씨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고향의 부실한 도로 사정과 위험한 교통 체계를 신경써서 고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급점용(73)씨는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사과나 고추 농사를 짓고 사는데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선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 투표 결과 이 당선인은 도촌마을이 포함된 예안면 제2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대선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보다 단 한 표가 적은 108표로 47.79%의 득표율을 보였었다. 이 당선인의 출신이 지역민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한 이틀을 남겨둔 지난 1일 고향인 안동을 찾아 지역과의 인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안동 웅부공원에서 “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의 물과 쌀, 풀을 먹고 자랐다”며 “부모님과 조부, 증·고조부, 선대 다 여기 묻혀있고 저도 안동에 묻힐 것으로 안동은 제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 기자

It's Okay,  
with  
Jesus!



#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  
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 독립기념일 스페셜

## 나이아가라, 몽트랑블랑 & 퀘백

나이아가라/몽트랑블랑/퀘백/오저블케이즘

7/3(목)-7/6(일)

**3박4일 \$950**

## 노아의 방주

성경 이야기에 기반해 방주를 원형 그대로 재건한 테마공원

7/4(금)-7/6(일)

**2박3일 \$799**

## 스모키마운틴

딕시시스템프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7/4(금)-7/6(일)

**2박3일 \$899**

### 한스 핫딜

모마 미술관 **MoMA+뉴욕투어**

당일투어 6월28일(토) \$149

###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뉴욕 1박2일**

뉴욕+엡지전망대/케이프 메이 페리/특식

1박2일 7/12(토)-7/13(일) \$425

## 찰스톤/올랜도/마이애미/낫쏘 바하마 크루즈

8박9일 2026년 1/16(목)-1/24(토)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볼티모어 출발, 인솔자 동행

## 2026년 1월, 겨울을 잊게 할 특별한 휴가

### 캐논 럭셔리 골프 투어

4박5일 2026/1/25(일)-1/29(목)

\$2,490 항공포함

고급 올인클루시브 Hyatt Vivid All-Inclusive 리조트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코스 3곳에서의 18홀 라운딩 공항-호텔-골프장 전용 차량 이동, 인솔자 동행

Mayakoba El Camaleon Golf Club/Iberostar Playa Paraiso Golf Club/Riviera Cancun Golf & Resorts

|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                             | 항공 불포함 (인솔자) |  |
|-----------------------------|-----------------------------|--------------|--|
| 6/10(화)-6/19(목)             | 알프스 하이라이트 9박10일             | 마감           |  |
| 7/1(화)-7/14(월)              | 북유럽+발틱 13박14일               | 마감           |  |
| 7/17(목)-7/22(화)             | 캐나다 록키 5박6일                 | 마감           |  |
| 8/1(금)-8/15(금)              |                             | 마감임박         |  |
|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 \$16,400                    | 조앤 한         |  |
| 8/1(금)-8/13(수)              |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 마감임박         |  |
| 아프리카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12박13일    | \$12,900                    |              |  |
| 8/4(월)-8/16(토)              |                             |              |  |
|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 \$12,900                    |              |  |
| 8/4(월)-8/17(월)              |                             |              |  |
| 아이슬란드 7박8일                  | \$6,900                     | 재키 조         |  |
| 8/10(일)-8/16(토)             |                             |              |  |
| 그린랜드 6박7일                   | \$5,950                     |              |  |
| 8/13(수)-8/19(화)             | 알래스카 6박7일                   | 마감           |  |
| 9/8(월)-9/21(일)              |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              |  |
| 중양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 \$5,290                     | 조앤 한         |  |
| 9/14(일)-9/24(수)             | 프랑스/스위스/이태리                 |              |  |
| 서유럽3개국 10박11일               | \$3,590                     | 애나 김         |  |
| 9/30(화)-10/13(월)            |                             |              |  |
|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                             |              |  |
| 동유럽 & 크로아티아,폴로미티 13박14일     | \$4,890                     | 애나 김         |  |
| 9/30(화)-10/7(화)             |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              |  |
| 동유럽 7박8일                    | \$2,890                     | 애나 김         |  |
| 10/6(월)-10/13(월)            |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              |  |
| 크로아티아,폴로미티 7박8일             | \$2,990                     |              |  |
| 10/9(목)-10/18(토)            | 볼티모어 출발                     | 마감           |  |
|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                             | 인솔자          |  |
| 10/9(목)-10/19(일)            |                             |              |  |
|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 \$4,890                     | 조앤 한         |  |
| 10/15(수)-10/25(토)           |                             |              |  |
|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 \$2,990                     | 인솔자          |  |
| 10/15(수)-10/26(일)           |                             |              |  |
|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 \$3,690                     | 세라 정         |  |
| 10/17(금)-10/30(목)           | 프랑스 일주 13박14일               | 마감           |  |
| 10/19(일)-10/31(금)           |                             |              |  |
|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 \$3,690                     | 조앤 한         |  |
| 10/22(수)-10/31(금)           |                             |              |  |
|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 \$2,890                     |              |  |
| 11/6(목)-11/18(화)            |                             |              |  |
|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 \$5,490                     | 조앤 한         |  |
| 11/7(금)-11/19(수)            | 일본의 알프스-                    |              |  |
|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 \$5,995                     | 재키 조         |  |
| 11/11(화)-11/20(목)           | 카이로, Memphis,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 |              |  |
|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 \$4,090                     | 데이빗 한        |  |
| 11/26(수)-11/30(일)           |                             |              |  |
| 멕시코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 항공포함\$2,090                 | 세라정          |  |
| 11/29(토)-12/12(금)           |                             | 마감임박         |  |
|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3박14일     | \$6,590                     | 재키 조         |  |
| 12/1(월)-12/12(금)            |                             |              |  |
|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 \$4,950                     |              |  |
| 12/1(월)-12/7(일)             |                             |              |  |
| 쿠바 6박7일                     | \$2,987                     | 조앤 한         |  |
| 2026년 1/10(토)-1/19(월)       | SMALL GROUP TOUR            |              |  |
|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9박10일       | \$5,090                     | 조앤 한         |  |
| 1/16(목)-1/24(토)             |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 NEW          |  |
|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                             | 인솔자          |  |
| 1/29(목)-2/8(일)              |                             |              |  |
| 신비의 북인도 10박11일 여행           | \$3,490                     | 재키 조         |  |
| 1/29(목)-2/10(화)             |                             |              |  |
|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                             |              |  |
| 2/9(월)-2/14(토)              |                             |              |  |
|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 항공포함\$2,190                 | 세라 정         |  |
| 2/9(월)-2/21(토)              |                             |              |  |
|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 \$5,150                     | 조앤 한         |  |
| 2/13(금)-2/21(토)             |                             |              |  |
|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 \$3,980                     |              |  |
| 2/17(화)-2/26(목)             |                             |              |  |
|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 \$4,190                     | 데이빗 한        |  |
| 2/25(수)-3/5(목)              |                             |              |  |
| 페루 일주 8박9일                  | \$3,595                     | 재키 조         |  |
| 3/5(목)-3/19(목)              |                             |              |  |
|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                             | 재키 조         |  |
| 3/23(월)-4/1(수)              |                             |              |  |
|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 \$3,690                     | 조앤 한         |  |
| 3/30(월)-4/11(토)             |                             |              |  |
| 일본 맛여행 + 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                             | 재키 조         |  |
| 4/9(목)-4/17(금)              |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              |  |
| 베네룩스 3국 8박9일                |                             | 세라 정         |  |
| 4/12(일)-4/21(화)             |                             |              |  |
| 국국의 봄, 남해 맛 기행 +제주도 9박10일   |                             | 재키 조         |  |
| 4/20(월)-4/28(화)             |                             |              |  |
|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 \$3,490                     | 조앤 한         |  |
| 4/20(월)-5/1(금)              |                             |              |  |
|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                             | 애나 김         |  |
| 4/26(일)-5/6(수)              |                             |              |  |
| 시실리 섬 + 몰타 10박11일           |                             | 재키 조         |  |
| 5/4(월)-5/14(목)              | 프랑스/스위스/이태리                 |              |  |
| 서유럽3개국 10박11일               |                             | 세라 정         |  |
| 5/24(일)-6/4(목)              |                             |              |  |
|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11박12일          |                             | 재키 조         |  |
| 6/14(일)-6/25(목)             |                             |              |  |
|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11박12일           |                             | 재키 조         |  |

### 한스 프라이빗 투어

나한테 맞는 맞춤 여행,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투어로 가는 딜럭스 투어.

- ✓ 포르투갈 골프 + 투어 8박9일  
골퍼들의 천국, 유럽의 골프 명소, 포르투갈 알가르베 골프와 여행.
- ✓ 터키 안탈리아 골프 + 투어 8박9일  
지중해를 끼고 환상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 플레이와 이스탄불 투어를 함께.
- ✓ 스코틀랜드,하이랜드 스카이 섬 트레킹 11박12일
- ✓ 과거로 가는 쿠바 여행 6박7일

(8분이상 가능)

###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6/19 출발가능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8/6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7/28 마감!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400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http://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인생 밑바닥서 기어올라왔다”... 비주류의 삶, 정치자산 됐다

8년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이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대선 경선, 2022년 대선 본선에서 패했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삼수 끝에 대통령실에 입성한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경기지사·야당 대표로 이어지는 그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릴 적 참혹했던 경험은 때때로 그를 주저앉혔지만, 오랜 비주류의 삶은 인생의 자양분이자 정치적 자산이 되어 지금의 그를 빚어냈다.

## #소년공 이재명

“나는 겁이 없다.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날 때부터 감심장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왔기 때문이다.”(『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1963년 10월 23일(음력)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태어났다. 산골 화전농이던 부모 슬하 5남2녀 중 다섯째였다. 20리(약 7.9km) 산길을 걸어 국민학교를 다녔다. 가난의 배고픔은 등하굣길 “산과 들에서 먹어서 죽지 않는 것은 모두” 먹으며, 가난의 설움은 학교 도서관에서 『암굴왕』 『해저 2만리』 같은 이야기책을 읽으며 해소했다.

아버지는 이재명이 국민학교 3학년 때 집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노름빚과 남은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어머니 몫이었다. 이재명은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준비물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선생님에게 흠뻘 두들겨 맞거나 화장실에서 똥을 푸는 벌을 받았다.

이재명은 삼계국민학교 졸업 직후인 76년 2월 고향을 떠났다. 집 떠난 아버지가 잡역부로 일하며 정착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으로 이주하면서다. 온 가족이 생계전선에 내몰리면서 학업은 중단됐다. 대신 소년공의 삶이 시작됐다. 손톱 밑에 박힌 검은 고무가루, 몸 이곳저곳에 남은 배인 흉터, 손목이 프레스 기계에 눌리는 바람에 굽은 왼팔은 그 시절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흔적이다. 장애를 입었다는 좌절감에 두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재명은 78년 중졸 검정고시와 80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대학 본고사를 폐지한 81년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입 시험을 준비했다. 오전 7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4시에 귀가하는 일정을 소화한 끝에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 #변호사·시민운동가 이재명

“사람이 되어야지 명사나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1987년 4월 28일 일기)

이재명은 대학 동기들이 아스팔트로 나갈 때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재수 끝에 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해 위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사시 합격 소식을 들곤 울었다. 이재명은 저서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얼굴이 나에게서 용기의 원천이 됐다”고 회고했다.

87년 3월 입소한 사법연수원(18기)에서는 학생운동권 출신 연수생들이 조직한 ‘노동법학회’에 참여하며 사회과학 서적을 뒤늦게 접했다. 가두시위에 나섰고 무료법률상담 활동도 했다. 노태우 정부가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 작성·발표도 주도했다.

88년 5월 19일 일기장에 “나는 성남을 새로이 일으킬 것이며, 민주화의 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고, 성남 지역의 사랑받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쓴 이재명은 이듬해 성남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 무렵 몰밭도 하던 노동 관련 시국사건은 그가 도맡다시피 했다. 시위할 땐 시위대의 일원이었고, 시위가 끝나면 체포된 이들의 노상(路上) 변호사였다.

이재명은 매주 금요일 성남의 재야 인사들과 어울리며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앞둔 95년 3월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을 창립했다. 그의 별명은 ‘싸움닭’이었다. 첫 작품은 96년 성남시 대장동 수도권 남부 자유소 건설저지 운동이었다.

성남시로부터 3개월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5일 만에 건축 허가가 나면서 뒤통수를 맞는 실패를 겪었다.

99년엔 성남시가 기존 업무·상업지역이던 백궁·정자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렸다. 2002년 5월 국경원 건부의 폭로로 백궁·정자지구 아파트(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이 문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는 방송사 PD와 검사 사정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정치인 이재명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4월 27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이재명은 2003년 성남 구도심 소재 종합병원 2곳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자 공공의료시설인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

“먹어서 죽지 않는 건 모두 먹었다”

화전농 아들로 지독히 가난한 유년 일하면서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시절엔 ‘싸움닭’ 별명

20대 대선패배 직후 계양을 출마

당대표, 총선 압승 뒤 대선 승리



1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소년공이었던 1978년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때 찍은 수험표 사진. 2 이 당선인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90년 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동을 벌였다.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안제도를 연구해 성남시민 1만8595명의 서명과 손도장을 받은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상안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2004년 3월 이 조례안에 대해 무기한 심의 보류를 결정했고, 당시 방청석에 있던 이재명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재명은 훗날 “함께 방청하던 시민들이 눈물로 날치기 무효를 절규하며 도망간 시의원과 시의장을 쫓아다니는 걸 보며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2006년 2월 2일 블로그)고 썼다.

시의회 ‘난동’의 주범으로 몰린 이재명은 경찰 수배망을 피해 시청 옆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로 몸을 숨겼다. 이때 시민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정치를 결심했다. 그는 2005년 8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성남시장)와 2008년 총선(성남 분당갑)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성남시장이 된 건 5년이 더 흐른 뒤였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직후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후 포퓰리즘(인기영합)이란 비판

에도 3대 무상 복지정책인 무상교육·무상급식·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며 무상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재명은 그해 6월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 #대선후보 이재명

“상처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었다.”(『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은 2017년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했지만, 경선 3등에 그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됐다. 계곡 정비 사업, 남한산성 불법 노점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 도민의 박수를 받았고,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엔 신천지 본부를 찾아가 현장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2021년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한다. 당내 경선은 무난히 통과했지만, 2022년 3월 본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그는 ‘대선 패배 후 백의종군’이란 기존 문법을 깨고 3개월 만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도전해 곧장 국회에 입성했다. 2022년 8월, 지난해 8월 두 차례의 전당대회에서 연이어 당 대표로 선출

되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야권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사법 의혹은 줄곧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기사화생한 그는 지난해 1월 부산 방문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은 당 안팎에서 ‘비명횡사·천명횡재’란 비판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압승(175석)을 거두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그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당사자들로서는 힘든 일이었겠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은 명실공히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우뚝 섰다.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내건 그는 자신이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책임자라며 이렇게 외쳤다. “지금은 이재명.”

허준호 기자

##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호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영어상담**  
이중언어자 환영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 김원근 변호사

##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소년공 절친 “재명이는 역시 다르다는 걸 보여주길”

심정운(62)씨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소년공 시절의 죽마고우(竹馬故友)다. 이 당선인 스스로도 심씨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어릴 적) 가슴이 터질 것같이 답답할 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유일한 대상”([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이라고 표현했다. 이 당선인은 같은 책에서 “나에게 정운이는 너무나 절실한 존재였다”고도 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함께 공부하며 대학 진학의 꿈도 같이 이룬 둘도 없는 친구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싹튼 두 사람의 우정은 꾸준히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심씨는 1982년 이 당선인과 나란히 중앙대에 입학해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이후 한국전력에 취업했고, 2년 전 정년퇴직해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심씨는 지난달 30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후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 막걸리도 함께 마시고 낚시도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년공 시절 이 당선인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78년 봄 성남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처음 만난 재명이는 키가 작고 눈이 초롱초롱한, 학원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소년이었어요. 당시에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공부만 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30~40명 정도 되는 학원생 중엔 여러 이유로 결석자가 많았는데, 재명이는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암기력과 이해력이 뛰어나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주 받았고요. 재명이는 학원에 다닌 지 3개월 만에 중졸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학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단기 합격자였죠.”

-공장에서는 어땠나요.

“저와 재명이는 79년에 ‘오리엔트’라는 시계 제조회사에 취업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재명이는 손재주가 뛰어나 일을 빨리 익혔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어린 나이에도 부서 책임자의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 공정 중에서도 도장(塗裝·도료를 칠하거나 바름)은 폐쇄된 공간이어서 고참들이 선호했는데, 재명이는 고참이 아닌데도 책임자의 신뢰로 그곳에 배치돼 근무했어요. 거기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하곤 했죠.” 이 당선인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인간 이재명』에는 심씨와 잠시 절교했던 사연이 소개돼 있다. 어느 날 심씨의 자취방에 갔더니 함께 자취하던 친구로부터 심씨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였다. 이 당선인은 그 이

‘죽마고우 심정운’이 본 이재명

1979년 시계 제조회사에 같이 취업  
검정고시 함께, 중앙대 나란히 입학

내가 술·담배 하고 학원 잘 안오자  
“대학 어떻게 하나” 화내고 간 적도  
나도 정신 차리고 대학 진학 성공



후로 심씨의 자취방에 가지 않았다. 당시 이 당선인의 일기장에는 “그건 나의 정운이에 대한 멸시, 아니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가 적혀 있다.

-이후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나요.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들 사이에서는 술·담배가 흔한 일이었어요. 저 역시 주변 소년공들과 어울리면서 술·담배를 하게 됐고, 학원에 자주 빠지게 됐죠. 이 사실을 안 재명이가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대학에 어떻게 가려고 하나’며 화내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 한동안은 서먹했지만, 제가 퇴근 후 소년공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제하고 학원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검정고시뿐 아니라 대입 학력고사 준비도 함께 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서로 문제를 내거나 교과서의 시(詩)를 외우곤 했고, 자습하다 졸릴 때면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머리에 뒤집어쓰며 졸음을 쫓았다. 그렇게 공부한 끝에 두 사람 모두 꿈에 그리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전공은 달랐어도 방학 때면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친분을 나눴다.

-대학 진학 후 첫 여행은 어땠나요.

“1학기가 끝날 무렵 재명이가 도보여행을 제안했어요. 춘천에서 시작해 양구·인제·한계령·양양을 거쳐 태백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텐트와 취사도구까지 짊어진 채로 길가에서 밥을 해먹고, 강가에선 낚시를 하면서 다시 걷는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심정운씨가 소년공이던 1980년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의 한 골목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이 당선인(오른쪽)과 심씨는 82년 도보여행 중 설악해맞이공원에서 기념 사진을 남겼다. [사진 심정운씨, 유튜브 ‘달리민주’]

고된 여정이었죠. 물집 잡힌 발을 칼로 터뜨리며 다시 걷기도 했으니까요. 양구에서 인제로 가는 비포장길을 걸어 자정 무렵 광치고개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로 환호하고 격려하던 기억이 아

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쌓은 체력과 의지가 훗날 어려운 일을 버텨내는 힘이 됐죠.”

-사회에 진출해서도 교류가 이어졌습니까.

“만남의 횃수는 적어졌지만 교류는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결혼식 날 재명이가 저희 부부를 공항까지 데려다줬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서 제 아내에게 ‘정운이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아무래도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혼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비 안 받을 테니 저한테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다행히 아내와는 지금껏 잘 살고 있어요. 재명이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는 워낙 바쁜 일정 속에 살다 보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따로 연락하지 않고 SNS로 응원 메시지나 주변 이야기를 보냅니다.”

-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변호사 활동과 성남시민모임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이 행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소년공 이재명과 정치인 이재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공 시절에는 자기 자신만 책임지면 됐잖아요.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해요. 이재명과 같은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소년공 시절의 경험이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년공 시절 겪은 프레스 기계 사고, 관리자의 횡포를 견뎌낸 경험은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자체도 리더로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발휘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 당선인이 5년 뒤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소멸·기후위기·고령화 등 국가가 직면한 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주길 바라요. 그래서 국민들 ‘이재명은 역시 다르구만’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심씨가 이 당선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23년 9월 4일, 이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심씨는 단식농성장에 설치된 민주당 유튜브 채널 카메라를 의식한 듯 어색해 하면서도 말없이 친구의 무릎을 톡톡 치며 격려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SNS로 ‘체력 끝까지 관리해서 꼭 이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당선인의 답은 하트(♡)였다. **하준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매매

렌트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채널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장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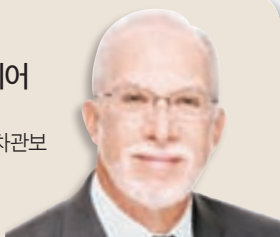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이재명 정부, 트럼프와 대중전략·대북억제력 주고 받길”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포스트 대선'

질문 순서: 1 가장 시급한 과제 2 새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 3 트럼프 행정부와 의 관계 4 안보 과제와 자체 핵무장 5 새 정부에 대한 조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 1 미국의 대북 억제력 신뢰성 확보
- 2 반미·반일·친중 정책 따른 이견
- 3 대중 견제와 주한미군 역할 놓고 갈등
- 4 자체 핵보유는 어리석은 일
- 5 동맹이 상호 이익에 부합함을 설득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1 관세가 미치는 경제·안보 위협 요인 제거
- 2 선거 때 내세운 '중도 보수' 브랜드 유지 여부
- 3 성공한 남북 대화로 주한미군 정당성 공멸
- 4 핵보유보다 미국의 동맹 방어 재확인 필요
- 5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등 미래 협력 제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1 **중국 공산당의 역내 지배 야망 차단**
- 2 **양극화 심화가 대외적 동맹 약화로 이전**
- 3 **트럼프와의 협상력 높일 '함' 확보 필요**
- 4 **전자권 조기 전환 등 대중 전략 변화 동참**
- 5 **동맹의 안전과 위한 구속력 있는 협정 필요**



브루스 베넷  
랜드공공정책대학  
교수

- 1 중국의 한국 지배 시도에 대한 대응력 확보
- 2 안보 전략의 일관성 필요
- 3 국방 예산 증액, 방위비 GDP 3% 선제 선언
- 4 핵무장은 대북 비핵화 명분 약화시킬 것
- 5 보수 숙청해 균형 잃으면 거친한 상호작용 불가



맥 셸리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 1 관세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 2 관세에 따른 성장 정책과 내부 불만 고조
- 3 진보적 정부와 생산적 논의 제약 가능성
- 4 대북 제재 약화 우려, 핵무장은 동맹에 치명
- 5 양자 관계와 경제·안보적 다각화 동시 모색

4월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 전략에 호응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외교 분야에서의 중도 보수 노선을 취임 이후에도 지속할지 여부를 향후 한·미 관계를 결정할 변수로 봤다.

중앙일보가 2일(현지시간) 에반스 리버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브루스 베넷 랜드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맥 셸리 아 이오와주립대 교수 등 미국의 외교·안보·정치 전문가들과의 심층 설문을 통해 종합한 결론이다.

리버모어 전 부차관은 “이 당선인의 과제는 트럼프 정부 들어 요구심이 생긴 한·미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대북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반미·반일을 조장하고 일부는 친중에 가깝다는 민주당에 대한 기존 인식이 재차 부각될 경우 미국의 새

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한반도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대북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인도 전략의 전체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 리비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듯하지만, 새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극대화할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넷 교수는 특히 '딜(deal)'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도 적절한 딜로 응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 우위의 국회에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하고, 임기 초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한국의 선제적 조치는 관세와 안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협상의 목표는 구체적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로닌 석좌

미국 전문가들이 본 새 정부 과제  
“국방비 증액 선제선언도 검토할만  
이재명 중도보수 계속 유지할지  
미국선 회의적 시각 여전히 있어”

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철강·조선 기술 등은 강력한 협상 무기”라며 “한국 정부는 창의적 협상을 통한 높은 가치의 승리를 얻을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경제·안보를 포괄한 미국의 구체적 의무를 적시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이끌어낼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럼에도 미국에 선이 당선인이 내세웠던 ‘중도 보수’ 브랜드를 집권 이후에도 유지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이 ‘세세(謝辭·고맙다)’로 상징되는 반관자적 입장을 취할 경우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결함 있는 남북 합의를 내세워 안보비용을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는 이를 주한 미군 감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셀리 교수 역시 “집권 초기 정치자본이 부족한 이재명 정부가 관세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는다면 안보의 측면에선 트럼프 정부와 내내 힘든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리더십 공백 기간 유예했던 ‘안보 청구서’가 발송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리버먼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유럽 동맹에 취한 행동은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고, 한국 역시 자구책을 고민하는 움직임은 놀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핵무장은 동맹 관계를 손상시키고 주한미군 주둔이나 북한 비핵화의 근거를 잃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오히려 재래식 무기를 활

유한 본쟁이 잦아지고 있다"며 "한국  
의 핵보유는 김정일이 '재래식 전쟁은  
괜찮다'고 오판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  
해 다양한 정치 의견을 수용하는 통합  
의 정치를 당부했다. 배넷 교수는 "미  
국에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선입견  
이 있고, 선거 기간 '보수 속행'을 시사  
하는 논의를 주의 깊게 봐 왔다"며 "만  
약 한국 정부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대변하는 균형을 갖추지 못할 경우 트  
럼프와는 건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셀리 교수도  
"이재명 정부는 시민사회 내부의 분열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더 나아가 한국이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월에 브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45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100여개의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통합된 한국의 여론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등 동맹의 장기적 미래를 제시할 경우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고 안보 협력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원팀 깨진 국민의힘, 예견된 패배... 당권 놓고 내홍 가능성

## 선거 내내 친윤·친한계 대립 지속 파면된 윤과 애매한 절연도 발목

시간이 멈춘 듯했다. 3일 오후 8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과반 득표 당선을 예측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엔 적막감만 흘렀다. 자리를 채운 국민의힘 중앙선대원 관계자들은 미동 없이 뚫어져라 화면만 쳐다봤다. 그러다 출구 조사 발표 20분 만에 씩씩처럼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난 1주일의 '깜깜이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가 약진해 이재명 당선인을 앞서는 이른바 '월든 크로스'에 근접했다고 주장해왔다.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릿수 차이의 열세이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예상하며 막판 역전극을 꾀했다. 사전투표 종료 직후인 지난 주말 이틀간 벌인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 김 후보는 41.3%를 기록해

47.2%인이 당선을 5.9%포인트 차로 따라붙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벌인 모두 6차례의 자체 조사 가운데 가장 격차가 좁혀진 게 마지막 조사였다. 그랬던 만큼 패배의 충격이 더 큰 모습이었다. 출구 조사 발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선 선대위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큰 격차에 “충격”이란 반응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언제 마지막에 터진 이제 몇 후보의 본질이나 각종 약재가 사전 투표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예견된 패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패인(敗因)은 차고 넘치지만, 결국엔 '하나가 되지 못했'다'로 압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벌인 친윤계와 친한동훈계의 대립은 선거전 내내 이어졌다. 과연 윤 전 대통령과의 애매한 절연은 선거전 내내 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쌍권 (권영세·권성동)’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를 추대하기

위한 경선판을 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 탈락 뒤 탈당 및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이탈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깨는 바람에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용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를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해 '후보 교체'란 초강수를 두다가 당원 투표로 무산된다는 일도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끝내 실패한 것도 패인 중 하나라 꼽힌다.

김기정·장서윤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 주목      | 주소                                   | 가격                                   | 특징                                                                                            | 상태         |
|---------|--------------------------------------|--------------------------------------|-----------------------------------------------------------------------------------------------|------------|
| 매매 및 렌트 |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 <b>SALE</b><br>\$1,999,900           | 맥클린 고등학교 옆, HOA 없음, 홈스테이 하기 딱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실용적인 집 구조, 맥클린 다문화로 도보 가능, 집 앞 버스정장 등 교통 편리 |            |
|         |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 <b>SALE</b><br>\$970,000             |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상급층 4/20 마켓에 올라와 예정                           |            |
|         | 1631 Cecile St, McLean, VA           | <b>UNDER CONTRACT</b><br>\$1,430,000 | 맥클린 고등학교 걸어서 5분 위치, 상급층, cul-de-sac, 오픈하우스 이벤트를 보여주고 좋은 오퍼 받아 계약                              |            |
|         | 1930 Battery Park Dr, Vienna, VA     | <b>SALE</b><br>\$1,315,000           | 여러 오퍼 경쟁 통과 특별, 여기는 오퍼 자신 있음.                                                                 | <b>NEW</b> |
|         | 2325 9th St, S, Arlington, VA        | <b>SALE</b><br>\$925,000             | 5/20 세들먼트 완료                                                                                  | <b>NEW</b> |
| 사업체 매매  |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 <b>SALE</b><br>\$501,000             | 복수 오퍼 받아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오퍼 선택,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            |
|         | 델라샵(DC)                              | \$150K                               |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타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

| 주소                                                              | 기간                                              | 세입자                                                                      |
|-----------------------------------------------------------------|-------------------------------------------------|--------------------------------------------------------------------------|
| 파머팩스 지역 봄-여름 나올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있음.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집 형태 (콘도, 타운, 싱글) | 6-7월 말 입주 가능함                                   | \$1,800-\$5,200 가격대 렌트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
| 여름에 파견 나올 주택중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 6월 말-8월 초 입주 희망                                 | \$2,000 - \$5,500 가격대 렌트                                                 |
| 6867 Williamsburg Pond Crt, Falls Church, VA                    | <b>NEW</b><br>7/28 입주가능<br><b>RENT</b>          | \$4,950 매월 부속 생활주중 맥클린 고등학교 West Falls Church 메트로에서 5분 안쪽에 좋은 단지, 99% 마루 |
|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 <b>NEW</b><br>7/1 입주가능<br><b>RENT</b>           | \$5,800 월 4, 화 3.5, 맥클린 내 유망하게 수렴한 있는 단지, 맥클린 다문화로, 교통/상권 편리             |
|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 <b>NEW</b><br>주인이 살고 있어 입주 의는 가능<br><b>RENT</b> | \$3,500 로부터 콘도, 방 3, 화2, 커벳 없음, 집 전체 리모델링, 새 가전, 교통/상권 편리, 좋은 학교         |
| 1540 Hampton Hill Cir, McLean, VA                               | <b>PENDING</b><br>4년<br><b>RENT</b>             |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없이 바로 연결                                                |
| 1430 Lady Bird Dr, McLean, VA                                   | <b>NEW</b><br>2+2년<br><b>RENT</b>               | 주제된 마켓에 내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So Happy                                       |
|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 <b>NEW</b><br>1+1년<br><b>RENT</b>               |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없이 바로 연결                                                |
| 9690 Scotch Haven Dr, Vienna, VA                                | <b>NEW</b><br>2년<br><b>RENT</b>                 | 주제된 마켓에 내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무병 지원                                         |
|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 <b>NEW</b><br>2년<br><b>RENT</b>                 | 주제된 마켓에 내놓지 않고 연결, 다른 세입자, 무병 지원                                         |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채 더 있음

##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실,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독점

Dumfries

타운홈

포토맥강이 보이는 골프 단지에 위치한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1/2,  
2022년 지어진 집, 4층 구조, 럭셔리 부엌,  
나무 마루, Double Deck, 최고급 빌더 (Stanley Martin)

\$625,000



Contract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Sold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꾸기

권위가 담긴 말 ‘대권’

왕정 국가였던 조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백성들은 용안으로 불리는 왕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었다. 행차라는 이름으로 왕이 길을 나섰을 때 백성들은 왕에게 복종한다는 뜻을 표해야 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려 했다. 왕은 군사는 물론 행정, 사법,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다.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왔다.

왕이 가진 권력과 권한은 ‘대권(大權)’이란 말로 표현됐다. 대권은 곧 왕권을 뜻했다. “벼슬과 녹을 주는 것은 임금의 대권이랴.”(세종실록), “상벌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권이라.”(성종실록), “폐하의 대권으로 협상해 잘 처리하라는…”(고종실록)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대통령의 얼굴을 다른 말로 부르지 않는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편하게 쳐다봐도 된다. 한뼘이 밝히고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지자면 ‘대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대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식이 있다. 국어 사전들에도 이런 생각이 반영돼 있다. 국어 사전들은 ‘대권’을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풀이한다. 헌법에서는 ‘대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대권’에는 이전 시대의 권위적 의미가 묻어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강요된 평등이 만든 불평등



정윤재  
사회부 기자

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 됐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평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이란 각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위스파 사건과 올림퍼스 스파 판결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느낀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를 동일한 여성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성별 지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공간에 나체로 들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한국 찜질방 문화처럼 나체가 기본인 공간에서, 13세 소녀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과연 누구의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특히 위스파 사건의 피고 머레이거는 이미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성기 노출로 유죄를 선고 받은 성범죄 전과자이며, 이후 성범죄자 목록에도 등록됐다. 그가 성별 등록을 여성으로 바꾼 뒤 여성 스파에 나체로 입장한 행위는 단순히 트

랜스젠더 권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인의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성 정체성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중단하는 태도는, 오히려 트랜스젠더 전체를 향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 발생한다. 개개인의 권리는 충돌할 수 있고, 그 충돌을 조율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여성 전용 공간을 지키려는 여성들의 권리,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여성 선수들의 권리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집단의 불편과 위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가깝다.

가주 정치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진영은 ‘내가 여자라 느끼면 여자다’, ‘느낌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감정에 기반한 주장일 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해법이라 보기 어렵다. 모든 개인은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같은 대우’가 아니라 ‘다름의 인정’이어야 한다. 생물학적 차이를 외면한 채 억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혐오와 반발만 키우게 된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존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존중은 실현된다.

네트워크

끝이 없는 티빌리시의 밤



안착희  
글로벌협력팀장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심에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세대의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20~30대들이 앞장서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단지 법안 하나를 반대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이 분노하는 대상은, 조지아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유럽 지향의 방향성을 흔드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러시아의 그림자아래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극도로 경계하는 시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조지아-러시아 무역은 활발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역 활동이 막힌 러시아가 조지아를 통해 각종 물자를 조달하면서 티빌리시에서 러시아 국경으로 향하는 212km 길이의 조지아 군사 도로에는 끝없는 화물트럭 행렬이 들어섰다. 조지아의 러시아 무역 의존도는 10%를 넘어 2024년에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서방의 가치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조지아로서는 러시아로의 회귀 또는 EU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 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의 시민들이 조금씩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 방향은 분명하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정부 바뀔 때마다 뒤통수… 새 정부는 현실 좀 보라”

##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도파민 제로 시티’.

유튜브 ‘괴식대학’이 지난해 5월 경북 영양 편 영상에 붙인 섬네일 문구인데, 재미 하나도 없는 동네라는 뜻이다. 손흥민과 잭 블랙 등 글로벌 스타가 앞다퉈 출연하며 연일 구독자와 조회 수가 치솟던 이 인기 채널은 들끓는 지역 비하 비판 여론에 순식간에 구독자(당시 318만)가 수십만 빠졌다.

하지만 정작 여기서 나고 유년기를 보낸 ‘페이지스북 인플루언서’ 택배기사 김슬기(35)씨 반응은 전혀 달랐다. 되려 ‘영양 사람인 내가 재밌는데, 구독 취소하는 xx들 영양 어딴지는 아냐’고 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김슬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다. 군중에 편승해 무턱대고 시가·질투·비난하는 대신 본인 경험을 잣대로 이성적 사고를 하고, 대세에 거스르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옳다 생각하면 거침없이 피력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런 스타일은 가난·학대에도 땀의 가치를 믿고 살아온 그를 괴짜 투사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땀 대기업에서 일감 받는 택배기사 신분으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파업에 혈혈단신 반기를 들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TV연설 후 대통령 측근이 이끄는 한 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집단을 향해 “자신 주장 관철하려는 자는 테러범, 테러 특수부대가 나설 때”라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부 위원들의 전제주의적 사고에 맞서 싸우다 박차고 나왔다. 또 윤 정부 고용부가 택배 대리점주에게 산재보험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는 방침을 내놓자, 본인은 점주 아닌 기사일 뿐인데도 “택배산업 망가뜨리는 정책”이라며 앞장서 SNS 여론전을 펼쳤다. 늘 자신을 ‘고졸 일자무식’이라 칭하지만 사회 좀 먹는 여느 이기적 엘리트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현장 무시한 정책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여 그냥 쉰다는 청춘이 50만명인 시대에 매우 사적이지만, 한편으론 새 정부가 새겨들을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거리 많은 인생을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 가난과 시혜, 정책의 허점

고향 영양은 신호등도 없는 전국 최고 오지였다. 다섯 살에 부모 이혼으로 타지 친척 집 전전하다 아무 경제 활동 없는 이 폐광촌에 돌아왔을 때가 초등 1학년. 돌봐주는 어른은 없었다. 빈집에서 형이랑 라면 끓이거나 산딸기 따 먹고, 잡은 물고기를 인근 공군 기지 인부한테 팔며 살았다. 몇 년 후 새엄마가 왔지만, 돈 벌러 간 아버지 없는 집에서 참 많이 맞았다. 엄마한테 “못 살겠다”고 전

화했더니 우릴 데려갔다. 그게 6학년 때(2002)다.

가난은 출생(1990)부터 따라다녔다. 병원비 없어 날 날자마자 바로 퇴원하는 엄마가 딱했는지 의사·간호사가 돈 모아 가져줘 사줬다고 한다. 쌀 없는 공포는 수시로 겪었다. 엄마 수입 끊기면 전 부 굶어야 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지능 검사가 늘 높게 나와 학교에선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학 생각한 적 없고 오로지 돈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1부터 알바 자리를 찾았다. 종일 전화 돌려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최저 연령(15세)이 걸림돌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생애 첫 일자리는 고1 때 인력사무소 통해 구한 측량 보조기사였다. 아침·점심·저녁 끼니마다 6~7인분씩 배불리 먹는 건 좋았다. 일당 7만원인 줄 알았는데 20일 일하고 100만원만 주길래 따졌더니 “주민등록증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해서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땐 원망했는데, 이젠 기회를 준 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약자 보호 명목으로 내놓는 정책의 허점을 나만큼 체감한 사람도 드물 거다. 20대 초반 택배 시작할 무렵 만난 아파트 경비는 대개 노인이었다. 월급이 많진 않아도 일을 해서인지 활기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2년 만에 6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급격하게 올리자, 전부 쫓겨났다. 그 자리는 보안업체가 차지했다. 살면서 딱 한 달 쉬어봤는데, 미치겠더라. 그 노인들도 타의로 집에 들어앉아 폭삭 삭았겠지.

남들 보기엔 힘들지만 한 인생이겠지만 어릴적 산타며 재밌게는 기억이 더 많다.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동사무소가 한 달에 두 포대씩 주는 쌀을 받았다. 고마웠지만, 왜 전작 안 도와줬느냐고 원망하거나 더 많이 바란 적은 없다. 1967년생 싱글맘 혼자 애 넷 먹여 살리는 걸 보며 늘 대단하다고 여겨서인지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늘 이 생각뿐이었다.

### 택배와 사진, 정책의 배신

난 가난하지만 여아의 포퓰리즘적 ‘무임’ 시리즈 정책에 반대한다. 부모 세대가 어렵게 일군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거나 규제 탓에 기업이 한국을 떠날까 노심조사한다. 남들 눈엔 기득권 근처도 못 간 고졸 블루칼라의 계급에 반하는 행보로 보이겠지만, 산업 생태계 이루는 기업 없이는 내 밥그릇 못 채운다는 걸 직접 겪으며 깨달아서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던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정부가 정책적 효과보다 의사 밥그릇 뺏는데 더 관심이 커 보여 동의할 수 없었다. 내 밥그릇 소중하면 남의 밥그릇도 소중하다. 뺏겨봐서 안다.

내가 유튜브 출연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게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상대로 파업했을 때 그 회사 물량 받는 택배기사로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부터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헛소리한다”고 감히 노조에 대항했다. 방검복을 선물 받을 만큼 살해 협박을 많이 받았다. 투사 되겠다고 한



가난해도 난 열심히 일할 생각  
정치인·관료는 세금 쓸 공리만  
택배기사·의사 모두 밥그릇 소중  
당위 아닌 현실 기댄 정책 잔질

지난달 12일 만난 택배기사 김슬기씨. 노조 파업에 수입은 반 토막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에 결국 파산했다. 전민규 기자

일이 아니다. 1년 가까이 공들인 거래처를 확보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파업 탓에 도로 빼앗긴 게 너무 화났다. 2021년 수차례 파업에 이어 12월부터 아예 두 달 넘게 끈 본사 불법 점거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파업 전 월 800만~900만원 벌다 300만 원대로 주저앉았으니 하는 말이다.

내 눈엔 밥그릇 걸린 파업이 아니었다. 통진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초대 김태완 위원장이나 후임 진경호 위원장 등 택배를 잘 모르는 외부인이 전체 10%도 안 되는 노조원 앞세워 다룬 정치적 목적을 취한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노·사·정·더불어민주당 참여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파업 사유였다. 현장 얘기 들어보면 노조 측이 고의로 구실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택배노조 지지하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

민의힘 의원들 역시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평일 오후 2시라도 부르면 정책 반영을 기대하고 국회로 달려갔는데 전부 의원 홍보용 사진찍기 행사로 끝났다. 내 얘기를 이해라도 한 건 최재형 의원이 유일했다. 지난 대선 때 택배노조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 지지했고, 난 택배산업을 살리는 반대쪽에 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부와 똑같이 택배 대리점주에 산재보험료를 소급 부과하는 식의 택배산업 죽이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 부동산과 파산, 정책의 파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남은 건, 현상 동떨어진 노동·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파산이었다. 택배노조 파업 직전인 2021년 전세 긴 겹투자로 서울 강동구 빌라 두 채를 샀는데, 윤 정부 원호를 초대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한도 축소로 예상했던 임대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결국 파산해버렸다.

사연은 이렇다. 문 정부 시절 서울 잠실 국민 평형 아파트가 한 달 새 5억원 오를 만큼 연일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절망했다. 2008~9년만 해도 내가 살던 수원 인근 광고 아파트가 미분양이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세져 광고 아파트는 꿈도 못 꾸게 됐다. 뭐라도 해야 했다. 마음이 급했다. “지금 수입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 빌라 두 채를 질렀다.

그런데 파업으로 일감 떨어져 수입은 반 토막나고, 겨우 버텼더니 전세 사기 방지한다며 무고한 임대사업자의 역전세 노출에 아무 대비 없이 한도를 축소해버려 사기꾼도 투기꾼도 아닌 나만 빛에 허덕이게 됐다. 만약 3억 4000만원에 들어온 세입자가 연장한다면 하락한 요율에 맞춰 2억 8000만까지 낮춰야(차액 6000만원을 돌려줘야)한다. 차량 담보 대출이며 신용대출, 친구·형한테까지 빌렸지만 턱도 없었다. 의무임대기간(4년)을 어기면 과태료만 3000만원이라 팔 수도 없었다. 파산 신청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내가 지금 둘째를 임신했지만 이런 경제적 사정 탓에 아직 혼인 신고를 못 했다.

가진 거 없고 못 배웠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고 늘 생각했다. 지금 내가 가난한 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만 여겼다. 되는 일 하나 없어 ‘죽을까’ 하는 나쁜 마음을 먹었던 순간에도 남 탓, 사회 탓, 나라 탓하며 뭘 내놓으랴 한 적 없다. 오로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내 일터를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만 했다. 그런데 택배기사 해보니 보수든 진보든, 정치인이든 관료든, 엉뚱한 규제를 들이대 산업을 죽이고 결국 외국 경쟁업체 배만 불러주더라. 택배시장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국가 전체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 새 정부는 무슨 일 생기면 세금 쓸 공리만 하지 말고 제발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택배만 놓고 얘기하자면, 진짜 현장 목소리를 하이재킹하는 강성 노조 얘기만 들어서는 올바른 정책이 안 나온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UNDER CONTRACT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 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                                           |                                                 |
|-------------------------------------------|-------------------------------------------------|
| 애난데일 싱글홈<br>\$880,000                     | 버크 싱글홈<br>\$1.25M                               |
| 방3, 화3, 0.46 에이커<br>굿 로케이션<br>새지붕, 울수리한 집 | 방4, 화3.5, 차고2<br>3810 Sf, 0.25 에이커<br>숲이 아름다운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시 설

이재명 당선인, 국민 통합의 약속 잊지 말아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한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당선인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고, 이후 사법리스크에 시달렸기에 소화가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당선인에게 승리를 자축할 여유조차 없다. 정권인수위 없이 오늘(4일) 취임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엄중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외교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과의 관계를 주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부담스럽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의 경험을 쌓으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더 긴요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고차 방정식을 푸는 과제가 주어졌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 속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부진한 경제는 또 어떤가. 대미 협상 전략도 손 놓은 채 계약 이후 6개월을 허송했다. 대선후보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약속했으나 급증한 국가채무가 부담이다. 선진국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는 당차지만 전력 공급 등 인프라 대책은 막연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이번 대선도 네거티브로 시작해 비방전으로 끝났다. 정책 공약은 저급한 공세에 묻혔다. 선거가 끝난 뒤 날 선 증오만 남았다.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새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

러나 말뿐이었다. 모든 대통령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강성 지지층의 포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합이 의지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당선인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강성 지지자에게 휩쓸려 독선으로 치달으리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빗나가길 바랄 뿐이다. 이 당선인이 초유의 권한을 통합에 쏟기를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새 대통령의 지지기반 또한 넓어진다.

통합의 의지를 입증하는 첫 단추는 인사다. 곧 이어질 대통령실 인사와 국무총리·장관 임명

이 임명이 시금석이다. 야당과 협치를 이루려면 유능하면 서도 포용적인 인물을 국정

에 참여시켜야 한다. 강성 지지층과 결탁해 네거티브를 주도했거나 갈등을 조장한 인물은 거리를 뒤흔다. 과거 대통령들이 통합에 실패한 원인도 결국 인사 탓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반목과 대립을 치유하는 근본 처방은 헌법 개정이다. 느닷없는 계엄 사태와 반복된 대통령 탄핵은 ‘87년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웅변한다. 대통령에게 잇따른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절실하다. 이 당선인이 개헌 추진을 약속했고 다른 후보들도 개헌의 의사를 밝혔으니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이 당선인은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에 도전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 갈등·분열 치유 과제  
제왕적 리더십 벗어난 ‘협치 대통령’ 기대

벼랑 끝에 선 보수, 뼈를 깎는 쇠신 없인 활로 없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대패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새 노선을 걷는 게 옳았다.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히 사과하고, 비윤계 인사들을 당의 전면에 배치해야 했다. 당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낸 뒤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반이재명 성향의 인사들과 빅텐트를 추진했다면 어제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보수’에 사로잡혀 국회 탄핵 이후 급속같은 시간을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에 쏟아부었다. 당의 쇠신과 반성은 뒷전이었고 무모하게 탄핵 기각만 외쳤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탄핵 결정이 나온 뒤에야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대선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중도층은 상당수가 등을 돌린 뒤였다.

이번 대선은 자기 혁신을 외면하고 쉬운 길만 걸었던

안일한 보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제 보수는 벼랑 끝에 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에서 수도권·중도층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고 이 약점은 이번 대선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아스팔트 보수’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이념·정책적 기반을 새로 정립하고 그에 걸맞은 인적 진용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이준석 후보의 이탈로 구멍 난 2030세대

의 지지 기반을 복원할 방안도 시급하다. 나이가 보수 정치권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왜 잇따라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는지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해야 한다. 당에 친박이니, 친윤이니 하면서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면 핍박받는 풍토가 문제다. 헌신·포용이란 보수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계속 쉬운 길만 찾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선 당의 존립 근거가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 취임사대로 해달라



당사자조차 ‘세상이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발언이 게티즈버그 들뜰에서 있었다. 2분 정도였다. “여든 하고 일곱 해 전 우리 조상들은 이 대륙에 자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명제에 헌신했습니다”로 시작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이 나라가 하느님 아래에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로 끝났다.

앞서 두 시간 동안 연설한 이가 “당신처럼 두 시간 아닌 2분 안에 모든 생각을 담아낼 수 있었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망작’이 아니었다는 걸 위안 삼았다. 하긴 ‘명청하고 평범한 일용잡부들이나 할 만한 연설’(시카고 타임스)이라고 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 연설에 담긴 정신이 100만 명이 숨지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기도 미국이 국가적 통합을 이뤄내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말이다. 실제 “링컨은 부서진 뿔목 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산이 흩어지려는 통나무를 붙잡으면서 급류를 지나야 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그가 자신의 임무는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곧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주류가 지탱하는 뿔대를 밟고 착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나라는 축하해야 한다”(『권력의 조건』)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우리에게도 연설 자체만 보면 명문인 게 없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란 극심한 혼란을 견내내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인의 취임사가 그중 하나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란 문장이 널리 알려졌지만 이런 대목도 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시대적 요구이긴 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다. 분열 덕에 집권한 그는 더한 분열을 남겼다. 자신을 연호하는 이들만 국민으로 여겼다. 패자에게 가혹한 대통령이었다. 아름다운 말을 했으나 그걸 실천할 의지는 없었다. 자신의 말에 무책임했다. 그의 취임사는 결국 그를 조종하는 무기가 됐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 행동이,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존 F 케네디의 스피치라이터로 유명한 테드 소렌슨은 “제 아무리 고상하고 웅변적이어도 연설은 연설일 뿐이다. 말만 하고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며 “연설이 위대한 이유는 전달되는 강력한 사상·원칙·가치 그리고 결단 때문이다. 사상이 위대하다면 그 말이 평범하더라도 연설은 위대해진다. 말이 아무

정치 말로 하지만 말만으론 안돼  
원칙·가치·결단 담겨야 위대해져  
취임사도 마찬가지… 실천이 중요

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유창하더라도 그 사상이 평범하거나, 비어 있거나 악의적이라면 결코 위대한 연설이 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의 연설은 후자였다면 링컨의 연설은 전자였다.

오늘 새 대통령이 나온다. 약식이라곤 하나 취임사에서 자신의 5년을 그려보 일 것이다. 아름다운 약속의 말도 많을 것이다. 종국에 중요한 건 그 말에 담긴 정신이고 실천력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선의로 시작한 대통령도 이내 대통령직 자체가 갖는 모순을 마주하면서 흑화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대통령직은 ‘권력투쟁의 당사자이자 통합의 수임자, 전체의 대변자’로서 ‘복잡한 인과관계, 복잡한 갈등 관계 속에서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취임사대로만 해달라. 우리도 위대한 대통령 연설을 갖게 될 것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                                                                                                                          |                                             |
|--------------------------------------------------------------------------------------------------------------------------|---------------------------------------------|
|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
|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
|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
|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본사 인쇄계약업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 지역간지(이)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une 4,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 303-4556 / f: (703) 303-0988  
f: (703) 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피로감·불안·사회적 편견 ... 암 생존자 80% 일상 복귀 못해

암 유병자 250만명, 함께 사는 사회

암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그 어느 때보다 6월을 준비하는 마음은 분주하기도 행복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암 치료 전문 기관으로서 국립암센터가 첫 문을 연 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암을 이겨낸 암 생존자들을 위한 날(6월 첫째 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4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생 암 발병률은 남성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에 해당하고, 5년 상대 생존율은 72.9%에 이른다(그림). 그 결과 암 유병자수, 즉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으며 생존한 환자의 수가 250만 명(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이 넘어 말 그대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암'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죽음과 직결되곤 한다. 다만 의학의 발전, 조기진단의 확대,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 치료기술의 향상,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암을 '극복 가능한 질환'으로 바꿔놓았고, 그 결과 암 치료를 마치고 전이 재발이 없는 암 환자들에게는 '암 생존자'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되었다.

5년 생존율 73%...암과 함께 사는 시대  
하지만 암 생존자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고통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암의 재발과 전이, 그리고 또 다른 암(이차암)에 대한 불안이 있고 암 치료를 목적으로 받았던 다양한 치료들이 낳은 후유증-만성 피로, 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심장독성, 신경독성), 불안과 우울 등-을 겪기도 하며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2022년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우리나라 만 19세 이



결혼 앞둔 암 생존자 파혼 경우도  
맞춤형 직업훈련, 탄력근무 도입  
동료로 함께 일하려는 인식 필요

상 성인 암 생존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9.9%(1198명)가 암 진단 전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 제약요인은 피로감(61.8%)이 가장 많았고, 우울·불안 등과 같은 정신문제(36.4%), 통증(27.0%), 식생활 어려움(24.5%), 기억력·인지기능 저하(21.4%) 등도 겪었다.

사회적인 편견도 있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암 생존자는 스트레스가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아프기 전처럼 정상적인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뒀던 암 생존자가 출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파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목격한다. 암 생존자 스스로도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로 지내려한다거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 왜곡 또는 자신감 상실로 인해 사회 복귀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 관리 종합계획' 안에 암 생존자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의 하나로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지정·지원하여, 암 생존자의 신체·정신건강 평가, 영양·운동·심리상담,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가정·직장에서, 사회 전반에서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탄력근무제 확대와 같은 직장 내 제도 도입 및 확대, 암 생존자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사내교육 등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암 생존자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에서 암 생존자인 친구를 함께 도우며 학업하는 교육도 시작되었다는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암 생존자들의 올바른 자의식 및 자신감 찾기가 필요하다. 이미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발, 전이가 없음에도 요양병원에서 환자로서 장기 입원 생활하며 지낸다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맹신하여 구매한다거나 과용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스스로를 암을 잘 이겨낸, 암 치료를 끝까지 받은 용감한 전사(warrior)로서 칭찬하고 사랑해주길 전하고 싶다.

몇 년 전 암 생존자 기념행사에서 암 생존자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다. 상당수의 암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마지막 사진 또는 영정 사진이 될까 봐, 초라해 보일까 봐 암 진단 후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다고 했다. 그 날 찍힌 사진 속 자신이, 배우자가,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줄 몰랐다면 눈물 보인 분들이 있었다.

효과 입증 안 된 건강보조식품 맹신 말아야  
암 생존자의 삶은 고집이 아닌, 배려와 협력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직장·사회 및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암 생존자 스스로도 나를 향해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암 생존자들은 암의 공포 못지않게 삶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사회로 '회복'의 시작이다.

6월을 맞이하며 돌아보자. 나는 암 생존자인가. 또는 내 주위에 암 생존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치료 후 '생존'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피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켄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l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 최지호

##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 “1차 실패하면 다음 기회 없다” ... 요로상피암 처음부터 공격적 치료 해야

**인터뷰** 조정민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요로상피암은 소변이 직접 접촉하는 점막 세포인 요로상피세포에 생기는 암이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깔때기 모양의 신우를 거쳐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로 배출된다. 요로상피암이 소변이 지나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신우·요관·방광에 생기는 이유다. 이 중 소변이 가장 오래 머무는 방광 내벽에 잘 생긴다. 실제 방광암의 90% 이상은 요로상피암으로 진단된다. 그래서 요로상피암이라고 하면 방광암을 떠올린다. 5월 방광암의 인식의 달을 계기로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정민 교수에게 요로상피암 위험 신호, 치료법 등에 대해 들었다.

권선미 기자

**-요로상피암(방광암)을 의심하는 증상은.**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육안적 혈뇨다. 투명한 노란빛이 아닌 옅은 분홍색, 선홍색, 커피색, 흑갈색 등 다양한 색으로 소변이 변한다. 혈뇨로 응어리진 핏덩어리가 나오기도 하고 첫 소변에 피가 살짝만 비치기도 한다. 혈뇨는 매번 보이지 않는다. 간헐적으로 비치는데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혈뇨가 있다고 무조건 요로상피암인 것은 아니다. 감염, 염증, 결석이 있을 때도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육안적 혈뇨로 병의원을 찾은 사람의 13.2%는 요로상피암 등 요로계 암으로 진단됐다는 보고가 있다. 혈뇨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고 ▶허리·옆구리가 아프면서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요로상피암을 의심한다. 40세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혈뇨가 비쳤다면 소변검사, 방광 내시경 등으로 혈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좋다.”

**-혈뇨가 있다 사라지면 괜찮은 것 아닌가.**

“대개 한 번 피가 비치고 그다음엔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소변에 피가 나오는 정도와 요로상피암의 병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소변을 볼 때 혈뇨가 심하다고 암을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혈뇨가 사라졌다고 괜찮아진 것도 아니다. 특히 흡연자인데 육안적 혈뇨가 있다면 더 기만하게 살펴야 한다. 흡연은 요로상피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방광에 발생하는 요로상피암 발생 위험이 2~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담배의 발암물질은 폐로 들어가 여러 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의 요로상피세포를 자극해 암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한다.”

**-초기 요로상피암으로 수술했어도 재발률이 높던데.**

“사실이다. 암세포가 방광 점막층에만 있는 초기 암인 표재성 요로상피암은 방광경으로 암세포가 있는 병변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술한다. 방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잔존암이 증식하면서 암 재발로 여러 번 긁어내는 수술을 받는다. 요로상피암으로 방광 내부를 10~20번 이상 긁어내는 수술을 받으며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암세포가 점막층보다 아래에 위치한 근육·지방층까지 침투하면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진

전이성 요로상피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전이성 요로상피암도 장기 생존이 가능하단데.**

“파드셉 병용요법을 1차 치료로 적용했을 때다. 파드셉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에서 많이 발현하는 넥틴-4를 표적으로 세포 사멸을

흡연자는 방광 요로상피암 발생 위험 높아

파드셉 병용요법 1차 치료 적용으로

10명 중 3명 암세포 완전히 사라져

유도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한다. 두 치료제의 상호 보완적 작용으로 암세포 공격력을 높인다. 주요 임상 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은 약 70%다. 영상학적 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 관해 비율도 29.1%로 기존 치료법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런 임상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암 치료 지침서인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파드셉 병용요법을 유일한 선택요법(Category 1)으로 권고한다. 간 전이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파드셉 병용요법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완전 관해에 도달했다. 현재 완전 관해 상태를 10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개인이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만 해당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어 아쉬운 상황이다. 항암 치료 1회 기준으로 치료비는 1000만원이 넘는다. 항암 치료 효과가 있으면 계속 받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치료비를 확인하고 올면서 호스피스로 전환한 환자도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에서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파드셉 병용요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더 확실하게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다. 전이성 요로상피암은 전체 생존 기간 중 양값이 14개월 정도로 예측이 나쁘다. 요로상피암 환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요로 감염에 취약하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보험급여로 지원돼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 주로 시도

하는 항암 화학 치료는 치료 반응과 상관없이 요로 감염, 패혈증 등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항암 치료를 받기 힘들 정도로 전신 상태가 불량해져 후속 치료로 넘어가기 힘들다. 또 암세포가 간·폐 등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1차 치료에 실패하면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후속 치료로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 이들에게 다음 치료 기회는 없다. 또 후속 치료일수록 완전 관해 반응도 드물다. 임상적으로 1차 치료부터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파드셉 병용요법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미 폐암에서 1차 치료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이 전체 생존율 개선에 좋다는 연구도 있다.”

조정민 교수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 파드셉 병용요법을 시도하면 평균 생존 기간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 진료과목

- 임플란트
- 크라운
- 일반치과
- 신경치료
- 임플란트 틀니
- 미용치과
- 교정
- 충치치료
- 잇몸치료
- 발치
- 전체/부분 틀니
- 응급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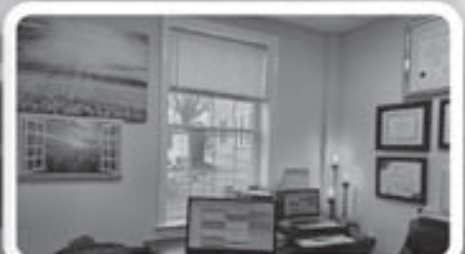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 (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 Anthem (Liberty) • Aetna • Humana •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123 Ox Rd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 손주 돌보기는 체력전... 황혼 육아 필수 체크

조부모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 든든한 육아 우군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조부모는 삶의 활력과 은퇴 후 맛보기 힘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건강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아이를 돌보면 필연적으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제 몸 돌볼 시간은 부족해 지병이 악화하고, 여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외감을 호소할 수 있다. 가정의 달 5월, 이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조부모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자.

놀이터에서 손주를 미끄럼 태우는 할아버지, 어깨에 아기 띠 두르고 손주와 산책하는 할머니. 현대사회에서 육아하는 조부모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에 다녀온 0~5세 아동의 8.5%를 조부모가 돌봤다. 평일 방과 후 6~17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비율도 6.8%다. 조부모는 이미 한 세대를 키워낸 경험이 있어 초보 부모의 신뢰할 만한 육아 지원군이다. 아이에게 노년 특유의 온화한 성품이 스며들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육아는 체력전이다. 이미 노화가 진행 중인 조부모에게 아이 돌보는 일은 노동 그 자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70)씨는 손주 셋을 기른 육아 베테랑 할머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 내외를 대신해 남편과 함께 육아를 전담했다. 문제는 육아 5년 차부터였다. 체력이 바닥나고 그간 숙면하지 못

해 면역력이 떨어져 어지럼병이 생겼다. 따로 운동할 여력이 없어 체중이 불어나면서 지방간까지 얻었다. 남편은 척추와 관절이 고장 났다. 아이를 수시로 안고 들어 올리면서 무릎관절이 약해지고 허리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을 받았다. 결국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 내외가 분가를 결정했다. 김씨는 “손주를 더 봐주고 싶어도 좀처럼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노년기는 노화로 관절과 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때다.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할 경우 손이나 허리, 무릎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아기를 안거나 씻길 때, 집

육아·집안일 병행으로 체력 소진

스트레스 덜 받게 마음 건강 돌봐야

이해·배려 통해 양육갈등 최소화



안일 할 때 손목을 자주 써 관절염이나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아기를 들 때 허리를 숙이거나 엮어서 척추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면 척추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생길 수 있다. 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땐 무릎관절에 체중이 실리면서 관절염 혹은 연골판 파열을 흔히 겪는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혜미 교수는 “이미 노화가 진행된 몸을 돌보지 못하고 무리한 육아를 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사·운동·수면 관리로 건강 챙겨야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 환경에

선 이마저도 실천하기 어렵다.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기보다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떡·면·빵으로 때우는 사례가 흔하다.

운동할 시간 여유도 없다. 생활습관 관리가 안 되면서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심해지거나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등 없던 만성질환을 얻는다. 노교수는 “이런 생활습관은 만성질환을 악화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혈관 질환, 우울증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면은 손자녀 육아를 하는 조부모의 주된 걱정거리다. 원래 노년기엔 불면증이나 일반 수면 시간에 잠을 못자는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가 흔하다.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우울증과 불안증, 치매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낮에 졸음이 몰려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아이하고만 장시간 붙어 있으면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기회도 줄어든다.

노혜미 교수는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친구들과 교류가 어렵고 여가와 취미를 즐기기도 힘든 사례가 많다. 이땐 우울증, 무기력감 등 심리적인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며 “조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와 손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체·정신 건강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영 기자

## 건강한 황혼 육아 위한 솔루션

### 스스로 할 일

#### 단백질 위주 식단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아이 밥부터 먹고 손주가 남긴 밥으로 때우곤 한다. 아이가 먹는 간식을 밤 대신 먹고 마는 경우도 많다. 노년기엔 젊은 성인보다 칼로리를 줄이되 영양의 질이 좋은 식사가 필요하다. 곡류, 어육류, 채소, 과일, 우유·유제품을 고루 섭취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충분히 먹는다.

#### 개별 운동 시간 확보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 할머니·할아버지, 혹은 자녀와 시간을 나눠 개별 운동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책하거나 집에서 아령·탄력밴드를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하고, 운동 교실에 등록해 수업을 듣는 식이다. 요즘엔 조부모와 아이가 함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참여하면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는 데다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 정기검진, 예방접종 필수

육아로 바쁘더라도 만성질환과 신체 증상 관리에 소홀해선 안 된다. 병원에서 하는 정기검진을 놓치지 말고, 어르신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꼭 챙긴다. 골병들지 않으려면 되도록 쪼그려 앉지 말고 마리를 숙이는 자세를 피한다. 근육이 뭉쳐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목덜미나 어깨, 허리가 뻐뻐하다 고 느낄 땐 따뜻한 물에 목욕하거나 찜질하면 도움이 된다.

### 자녀가 할 일

#### 육아 상한선 정하기

부모는 육아 조력자이고, 주 양육자는 본인들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육아의 처음과 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부모와의 양육 갈등이 시작되기 쉽다. 그러나 부모에게 육아를 무작정 부탁하기보다 상의해 미리 육아 상한선을 정하자. 낮 동안만 맡긴다, 방엔 아이를 직접 돌본다, 하루 최대 5시간처럼 육아 규칙을 함께 정해 지켜나간다.

#### 육아 스트레스 최소화

부모가 육아에만 몰입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식은 손주 육아를 맡은 부모의 동년배와 육아 정보를 교환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충분히 한다. 또 자식은 주말·공휴일만이라도 부모가 육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 대화로 양육 갈등 해결

부모·자식 간 양육 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조부모로부터 육아의 지혜를 얻는 대신 달라진 육아 지식에 대해선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지 않게 말로 설득한다. 무엇보다 평소 많이 대화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수고비를 드리거나 심리적인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도움말=노혜미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은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참고 도서=『할머니의 꽤 괜찮은 육아법』

## 건강 칼럼

##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

59세 여성이 손이 저리다는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여성은 양손 모두에서 첫째와 둘째 손가락 부위로 저리고 자주 마비가 오는 듯한 느낌을 말하였다. 환자는 오른손 잡이였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은 보통 하루 중 7-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였다. 환자는 또한 손가락의 통증도 호소하였는데 이는 몇 달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특이할 사항으로 환자의 증상은 주로 밤에 시작되어서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환자는 보통 손목을 주무르거나 털게 되면 통증이 덜해졌고, 최근 몇 주

전부터는 저린 증상이 밤낮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손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들 때 심해졌다고 하였다. 요즘엔 또한 손의 힘이 많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어졌다.

필자의 진찰시 환자는 양손의 쥐는 힘과 손가락의 근력이 떨어져 있었으며 손가락의 감각도 감소되어 있었다.

특히 환자의 양쪽 손목을 꺾은 채로 손등을 마주 대고 약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저린 증상이 유발되었고, 손목을 진찰 해머로 두드렸을 때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손바닥에 생기기도 하였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환자는 신경전도검사를 시행받았고, 그 결과 환자의 손목 부위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단명은 ‘수근관 증후군’

이었다.

수근관 증후군이란, 손목에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수근관이라는 터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통계상 인구 2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보통은비효율적인 손목의 자세, 대부분의 경우 손목이 앞으로 꺾이는 자세를 많이 취하는 경우나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라는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자면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 외에도 손목을 지나가는 힘줄의 염증이나 부종, 손목 손상,

임신이나 폐경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 이상, 스테로이드 복용, 퇴행성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본 환자의 경우 정중 신경의 손상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치료 후 상태가 완치될 수 있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병의 원인 될 만한 손의 잘못된 사용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음으로써, 효과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대성, 편리한 자원봉사자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14 ~ 7/18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깨물면 다디단 과즙 툭툭 초여름엔 초당옥수수 간식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어릴 때부터 옥수수를 유난히 좋아했다. 저녁이면 집 앞 평상에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옥수수를 먹던 풍경이 선명하다. 그 서정적인 풍경이 마냥 좋았다. 맛은 공감각적으로 기억된다. 평상 가장자리에 피워 놓았던 모기향 냄새까지 함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지금도 옥수수를 먹다 보면 모기향 냄새가 소환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옥수수와 관련한 어릴 적 기억이 서정적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옥수수 자체의 맛과 식감을 좋아하게 됐다. 옥수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곡물의 찰진 식감을 유난히 좋아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춰 옥수수 품종들이 속속 개발됐다. 흔히 ‘미백찰’ ‘대학찰’ 등으로 불리는 찰옥수수 품종이다.

처음엔 ‘사탕·설탕옥수수’라고 불러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씨앗인데 크게 배(씨눈), 배유(씨젖), 과피(껍질)로 나뉜다. 이중 부피와 무게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씨젖이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의 80~85% 정도를 차지한다. 씨젖의 90%는 전분으로 구성된다. 찰옥수수는 이 전분의 구성 성분 가운데 아밀로펙틴의 비율을 80% 이상 끌어올린 품종이다. 이 비율이 찰옥수수의 찰진 식감을 결정한다.

아밀로펙틴의 역할은 찹쌀과 멥쌀로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멥쌀에도 찰기는 존재하지만 찹쌀은 찰기가 극단적으로 높다. 멥쌀의 아밀로펙틴 비율은 70~80%, 찹쌀의 아밀로펙틴 비율은 95% 이상이다.

즉, 찰옥수수는 찹쌀처럼 아밀로펙틴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인 옥수수다. 찰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떨어진다. 미백찰, 대학찰 등의 찰옥수수는 아밀로펙틴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껍질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 최적의 식감까지 가진 옥수수다.

찰기를 유난히 좋아하고 별다른 조

돌연변이로 녹말 생성 과정 생략  
포도당이 액체 상태로 남아있어  
  
초당옥수수 나오면 여름철 시작  
경남~강원 한 달 동안 입맛 유혹  
한여름 열대야엔 찰옥수수가 제격

리 없이 옥수수를 찌서 그대로 먹는 한국인의 취향이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옥수수라 할 만하다.

그런데 2015년 전혀 새로운 옥수수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바로 초당옥수수다.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초당옥수수는 처음에는 ‘사탕옥수수’ ‘설탕옥수수’ ‘마약옥수수’ 등으로 불리다 2017년부터 초당옥수수라는 명칭이 굳어졌다.

초기에는 이름 때문에 두부로 유명한 강릉시 초당동과 무슨 관계가 있나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뛰어넘을 ‘초(超)’와 달콤하다는 뜻의 ‘당(糖)’이 결합된 극단적인 단맛의 옥수수라는 사실을 안다. 초당옥수수는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을 당시부터 ‘슈퍼 스위트 콘(Super sweet corn)’으로 불렸으니 돌고 돌아 제 이름을 찾은 셈이다.

찰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초당옥수수의 탄생 과정 역시 일종의 돌연변이고, 인간은 이 돌연변이를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 개량했다. 사실 옥수수의 탄생과 역사 자체가 돌연변이와 개량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옥수수 알갱이(씨앗)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만든다. 단맛의 포도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결합된 녹말로 변한다. 그리고 단맛이 사라진다. 때문에 옥수수는 익을수록 당도가 떨어



큰 볼에 연어, 토마토, 초당옥수수, 달걀, 잎채소를 듬뿍 넣어 만든 건강 샐러드와 소스. [중앙포토]

진다.

그런데 초당옥수수는 포도당을 녹말로 합성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이 과정이 수월치 않다.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되지 않고 단맛을 가진 당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초당옥수수는 씨젖이 대부분 액체 상태다. 이것이 초당옥수수 맛의 진짜 매력이다. 단지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깨물면 다디단 과즙이 터져 나오는데 그 순간이 정말 매력적이다.

**단맛 호기심 줄며 인기 예전만 못해**

그런데 단맛으로 순식간에 주목받았던 초당옥수수가 그 단맛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고 있다. 처음에는 그 엄청난 단맛에 끌려 너도나도 초당옥수수를 찾았고, 이런 시장의 반응을 의식한 농가에서도 재배 면적을 급격히 확장했다. 하지만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초당옥수수의 인기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재배 면적이 점차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맛에 끌렸던 소비자의 호기심이 점차 줄고, 저장성이 약하고 수확 기간이 짧은 한계로 농민들 역시 꾸준히 사랑 받는 찰옥수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사실 과일이나 곡물에서 단맛은 매력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단맛은 다른 모든 장점을 상쇄시키는 위험이 있다. 단맛은 맛의 요소 중에서도 강력한 개성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당옥수수는 옥수수를 익혀서 바로 먹는 한국인 식습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초당옥수수의 단맛과 과즙 그리고 특유의 향은 오히려 다양한 요리로 활용

될 때 그 매력이 두드러진다.

우리는 초당옥수수가 가진 이런 매력을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단지 단맛에만 끌려 너무 빨리 초당옥수수와 정을 떼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옥수수와 함께 여름을 맞고 여름을 보낸다. 초당옥수수가 시장에 등장하면 여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초여름은 그렇게 달콤하게 보낸다.

경상남도에서 시작해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거쳐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초당옥수수의 사이클은 한 달 남짓. 초당옥수수가 시장에서 사라질 즈음이면 찰옥수수가 등장한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다. 한여름의 열대야는 찰옥수수의 찰기와 함께 버틴다. 찰옥수수마저 시장에서 사라지면 아침저녁으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러니 내게는 매년 옥수수와 관련한 추억이 쌓일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나는 매일매일 초당옥수수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예정이다.

**박상현** 음식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 많은 맛칼럼니스트다. 현재 사단법인 부산로컬푸드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진료과목

- |           |        |         |
|-----------|--------|---------|
| ◆ 치매      | ◆ 어지럼증 | ◆ 손발 저림 |
| ◆ 뇌졸중(중풍) | ◆ 이명   | ◆ 감각이상  |
| ◆ 파킨슨병    | ◆ 불면증  | ◆ 보톡스   |
| ◆ 두통      | ◆ 수면질환 | ◆ 통증    |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바다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를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 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 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 표시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2,900 **\$2,300**

\$3,000 **\$2,500**

본토 휴침대 100% 생황토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장윤정의 휴표 휴침대**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휴표 휴침대의 장점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증진 효과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불을 원료로 한 휴표 휴 매트에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불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 휴 매트

**월딘 편백 반신욕기**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본토헬스 반신욕기**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자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일

강력도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서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뻑뻑한 눈꺼풀·이물감·눈부심·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딤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대!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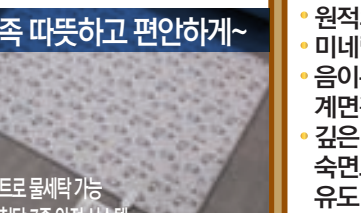
2020년월 업그레이드  
왕도불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 소셜연금 비과세, 재정 영향·상원 설득이 과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여러 세제 감면안이 담긴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달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 퇴고 조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소셜연금 수령액 비과세’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시니어는 소셜연금이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극적인 본회의 끝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에는 결국 시니어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은퇴자의 80%~90%는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5260만 명의 은퇴자가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매달 얼마를 받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상당수는 소셜연금의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비영리 시니어 옹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TSCL)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셜연금의 구매력은 2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개혁과 발표를 고대하고 있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7년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한시적 세제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의 수정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추가 조항이 더해졌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국 소셜연금·메디케어 보존위원회의 마리아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활용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따라 소셜연금 변경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절차는 연방의회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절차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절차를 통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인 51표 찬성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조정절차에서는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다루지 않는데 이를 고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이를 따 버드 규정이라고 부른다. 소셜연금 변경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조정절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채택되지 않은 대신, 법안에는 65세 이상에게 연 4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공제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던 표준 공제를 선택하던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약 560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설정돼 있어, 부부 개별 신고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는 15만 달러 이하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자는 점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연방 소득세 납부자는 전체의 약 40%인 2700만 명이다.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에 실망할 시니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IRA 불입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의료비 등 표준공제항목을 뺀 소득이다. 수정 조정



소셜연금 비과세 공약이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기대했던 시니어들을 실망시켰다.

## 예산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

결국 포함 안돼 시니어들 실망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따라

절충안 나올 가능성은 남아

총소득은 여기에 해외 근로 소득과 지방채 이자 등 면세 이자소득 등 특정 항목을 더한 소득이다.

연 4000달러 공제는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그만큼의 현금 환급이 돌아갈 것은 아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여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중산층 시니어 1명당 연간 88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 과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우선 이 공약은 대중적 인기가 높지

만, 재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약 절반의 은퇴자가 당분간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보다 많은 지출로 축적된 기금이 고갈되면 최대 21%의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과세 폐지는 사회보장연금의 세 가지 재원 중 하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해,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75년간의 급여 삭감 폭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상원에서 사회 보장법 개정을 위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을 포함해 4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공화당 53명 모두가 찬성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번 법안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소셜연금 비과세에 모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과세 폐지 공약은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는 지연시키거나 표결 실패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셜연금 과세는 언제나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 그래도 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셜연금 비과세가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4000달러 공제가 법안에 포함된 만큼 비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4000 달러 공제도 상원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예산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3.4조까지 늘린다는 예상이나와 공화당 안에서도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발이 커지면 4000달러 공제도 바뀔 수 있다. 만약 상원에서 이 조항이 없어지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소셜연금 비과세나 이와 비슷한 절충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기고 국회균 사랑플러스병원 병원장

## AI는 치료를 돕는 도구... 진료 중심은 여전히 환자여야 한다

국내의 병원, 인공지능 빠르게 도입 빅데이터로 진료 사각지대 대응도

의료 현장은 현재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병원 곳곳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진단과 치료·운영 방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 AI를 마주할 땐 경이로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이 전면에 나설수록 의료진이 지켜야 할 본질적인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AI는 어디까지나 치료 과정을 돕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의료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은 환자와의 신뢰, 공감,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 행위다.

AI의 가능성은 이미 국내외 병원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메이요 클리닉에서는 중환자실에 도입된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 89%’라는 경고를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조기 대응이 가능해진 결과 환자의 심정지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AI는 인간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진료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AI가 심전

도, 혈액검사, 영상검사, 전자의무기록(EMR)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간 충돌이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정밀 진료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메이요 클리닉은 AI를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닌 치료 팀의 일원으로 본다.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 위에 올려진 ‘환자 중심 철학’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형 병원에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2차 병원에서도 AI 시스템을 도입해 의

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 외래 환자의 유입 패턴을 분석해 진료 일정과 간호 인력을 자동 조정한 결과, 환자 대기 시간이 20~30% 단축됐다. 병동에서는 AI가 실시간 생체 정보를 분석해 낙상이나 급성 상태 악화를 사전에 경고한다. 정형외과 수술 환자에게는 AI가 회복 경로를 예측하면서 맞춤형 재활 계획을 제시해 준다. 고위험군 환자는 미리 식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초진 환자의 경우 AI 문진 시스템이 사전 정보를 정리해 의료진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과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사,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센터(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첼트리(H-mart)와 첼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고단한 청춘 응원하는 안방 드라마

“금메달을 어떻게 땀나? 보여줘. 멍청하게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특채 경찰 윤동주(박보검). 가는 곳마다 사건사고를 몰고 다니는 그는 짝사랑하는 지한나(김소현)의 이 말에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욕을 불태운다.

지난 5월 31일 첫 방송한 JTBC ‘굿보이’의 1~2화 내용이다. 윤동주는 2018년 상파울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년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벌인 과거가 있다. 결국 금메달은 지켰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도핑 선수’로 기억하는 상황. 위기 속에 경찰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윤동주는 지한나에게 자신의 실력으로 딴 금메달 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찬란한 성공기가 아닌, 불안전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잇따라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SBS ‘상속자들’(2013), 티빙 ‘피라미드 게임’(2024) 등의 주인공처럼 평균 이상의 스펙을 갖춘 ‘육각형 인간’이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서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은 더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의 삶을 있는 힘껏 살아내려 애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여정이 처절하거나 절망적인 건 아니다. 따뜻한 시선과 현실의 무게를 상쇄하는 코믹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끈다. 최영균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실의 짐을 짊어진 청춘들의 고단함만을 보여주면 자칫 극 분위기가 무겁게만 흐를 수 있다. 극 중 독특한 캐릭터 설정, 흥미로운 배경 등은 공감을 얻고 웃음을 통해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굿보이’에서는 ‘JUSTICE’(정의)가 새겨진 마우스피스를 물고 쟁, 흠, 어퍼컷 등 복싱 공격 기술로 범인을 제압하



찌질하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그래도 찬란한 청춘



성공 서사나 영웅 없이도 고단한 청춘을 응원하는 드라마들. 1 박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의 분투를 그린 ‘굿보이’ 2 쌍둥이 자매의 인생 체인지를 그린 ‘미지의 서울’ 3 자기관리의 공간이 아닌 자존감을 되찾는 무대로 헬스장을 택한 ‘24시 헬스클럽’.



성공 서사나 영웅 없이도 고단한 청춘을 응원하는 드라마들. 1 박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의 분투를 그린 ‘굿보이’ 2 쌍둥이 자매의 인생 체인지를 그린 ‘미지의 서울’ 3 자기관리의 공간이 아닌 자존감을 되찾는 무대로 헬스장을 택한 ‘24시 헬스클럽’.

는 박보검 표 액션 연기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경찰 동료인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지한나, 펜싱 은메달리스트 김중현(이상이), ‘만두 귀’를 가진 레슬링 선수 출신 고만식(허성태), 원반던지기 선수 출신 신재홍(태원석)도 각자의 특기를 살린 액션을 펼친다. 시청률은 2회 만에 5.3%(닐슨코리아, 전국)를 기록

‘굿보이’ ‘미지의 서울’ ‘사계의 봄’ 등 금수저·고스펙 등 화려한 삶 아닌 다양한 2030들의 성장스토리 담아 “요즘 젊은 세대가 겪는 현실 반영” 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7.3%까지 치솟았다.

1화 3.6%로 시작해 입소문을 내며 5.9%(4화)까지 오른 tvN ‘미지의 서울’도 특별하지 않은 청춘들이 살아가는 내용이다. 고향 두손리에서 마을 일꾼으로 살던 쌍둥이 동생 유미지가 서울의 공기업에 취직한 유미래와 인생을 바꾸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배우 박보영이 1인 2역을 맡아 섬세한 내면연기를

보여준다.

극중 유미래는 사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씩씩한 유미지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며 언니 대신 출근한다. 그러나 막상 서울 생활에 뛰어든 유미지도 회사 내 갈등, 관계의 괴로 속에 지쳐간다. 장신에 책임프로듀서(CP)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라며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5일 종영하는 KBS2 ‘24시 헬스클럽’은 로맨틱 코미디에 청춘 서사를 섞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꼭꼭 속아수다’ 영범 역의 이준영이 헬스에 진심인 관장 도현중을, 정은지가 타고난 비만 체질로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헬스장 회원 이미란을 연가한다. 그룹 유키스 출신에서 배우로 성공한 이준영은 “도현중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매개체가 운동이라면, 내겐 춤이 있었다. 춤을 추며 위로받았던 나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점에 끌려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방영 중인 SBS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 멤버 사계(하유준)가 하루아침에 팀에서 퇴출당하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줄거리다. 극 중 사계는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전 영화다. 어린 나이에 초대박이 났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이라며 “그래도 바닥을 치고 나니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인터뷰한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이 작품들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소외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청춘들에게는 자존감 회복과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성세대에선 어른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황지영 기자



신선한 정보!! 세련된 광고!!

“여러분 곁에 워싱턴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대표전화 : 703-281-9660

구독문의(Ext. 1) / 광고문의(Ext.2) / 편집 및 기사관련(Ext.3)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곡 한방병원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4안타 다음 날 선발 제외라니 ...

김혜성, 플레튼 기용 희생

1일 대타로 나와서 무안타

다저스는 양키스에 패배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 김혜성 (26)이 박리그 데뷔 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다음 날 벤치를 지켰다. 김혜성은 1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

김혜성은 전날 양키스전에서 시즌 2호 홈런을 포함, 4타수 4안타 2타점 3득점 1볼넷으로 맹활약했다.

게다가 유격수 수비에서 직선타를 잡고 2루에 귀루하지 못한 주자까지 처리해 혼자서 더블아웃을 잡고, 6회부터는 중견수로 자리를 옮겨서 에런 저지의 안타 때 2루까지 뛰던 저지를 잡아내 보살을 기록했다.

데이터 전문업체 ‘옵타’에 따르면, 빅리그 역사상 홈런 포함 4타수 4안타를 친 선수가 내야에서 혼자 더블아웃, 외야에서 보살을 잡아낸 것은 김혜성이 최초다.

이처럼 강한 인상을 남겼던 좌타자 김혜성은 이날 양키스가 왼손 선발 라



4안타 경기 바로 다음 날 선발 대신 대타로 출장한 김혜성.

[로이터·Jonathan Hui-Imagn Images]

이언 야브로를 예고하면서 플레튼(투수 유형에 따라 타자를 번갈아 가며 기용) 때문에 벤치로 밀렸다.

다저스는 야브로에게 6회까지 단 1점만 얻어내며 공풍 묵였고 결국 3-7로 패해 3연전 싹쓸이는 못 했다.

김혜성은 8회말 미겔 로하스 자리에

대타로 들어가 데빈 윌리엄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이날 경기로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422에서 0.413(46타수 19안타)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후 김혜성은 유격수 수비로 경기를 마쳤다.

다저스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3%인닝 7피안타(1홈런) 3볼넷 2탈삼진 4실점으로 못매를 맞고 올 시즌 처음으로 5회를 못 채웠다.

시즌 4패(6승)째를 당한 야마모토의 평균자책점은 1.97에서 2.39로 올라갔다. [연합뉴스]



## 스타르크 US여자 오픈 우승 최혜진 4위·고진영은 중위권

마야 스타르크(사진)가 제80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200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스타르크는 1일 위스콘신주 에린의 에린 힐스 골프코스(파72·678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 72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스타르크는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40만달러 주인공이 됐다.

스웨덴 선수가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AIG 여자오픈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이후 올해 스타르크가 약 4년 만이다.

한국 선수로는 최혜진이 4언더파 284타로 공동 4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최혜진에 이어서는 고진영과 윤이나가 나란히 이븐파 288타, 공동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월드컵 본선행 눈앞...대표팀 이라크로

LA시간 5일 9차전

무승부만 해도 확정

손흥민 출전 미지수

홍명보 팀이 월드컵 축구대회 11회 연속 본선행을 위해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전(한국 시간) 전세기편으로 이라크로 출국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손흥민(토트넘) 등 국가대표 21명이 홍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동행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한국은 4승4무(승점 16)로 조 선두다. 2위 요르단(승점 13), 3위 이라크(승점 12)가 그 뒤를 따른다. 한국은 남은 2경기에서 승점을 1만 추가하면 본선에 오른다.

5일 오전 11시15분(이하 미서부시간)이라크 바스라의 국제경기장에서



출국 전 팬들에게 인사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열리는 이라크와의 원정경기(9차전)에서 이기거나 비겨서 본선행을 확정 한 뒤, 10일 오전 4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웨이트와의 홈경기(10차전 최종전)에서 자축하는 게 최고 시나리오다.

변수가 없진 않다. 이라크는 정세

불안으로 외교부가 정한 여행금지국가다. 대표팀은 스태프 규모를 줄여 최소 인원으로 원정길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출국 전 회견에서 “월드컵 본선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후나 경기장 분위기 등

여러 변수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머리에 넣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발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과 관련해서 “선수 본인의(뛰려는)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지만, (구체적 출전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며 “무리를 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인(파리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다른 해외파 공격수 몸 상태는 좋다”며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휴식하며 개인훈련을 병행했다. 체력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이강인과 중동에서 뛰는 권경원, 원두재(이상 코르파칸), 조유민(샤르자), 박용우(알아인) 등은 현지에서 이라크로 곧바로 건너가 대표팀에 합류한다.

송지훈 기자

## 세플러 PGA 메모리얼 우승

임성재 16위·김시우 31위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시즌 3승 고지에 올랐다.

셰플러는 1일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벤 그리핀을 4타 차로 따돌린 셰플러는 더CJ컵 바이런 넬슨, PGA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우승도 16승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에 이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2연패도 달성했다.

임성재는 1언더파 71타를 때려 공동 16위(1오버파 289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븐파 72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공동 31위(5오버파 293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불면증, 어지럼증
- 만성피로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소화장애, 순환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



##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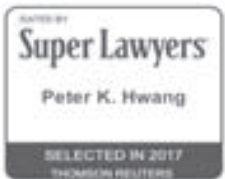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6월  
구  
인  
광  
고

#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매매

TEL: 571-212-3082

#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 한국 고전 가구

#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 워싱턴 사계절 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 25년 융자 경력

# 제인 최 융자

#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 410-446-9981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황계실

#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 571-239-6054

#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 SSP Distributor

#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 대형믹서기

#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 메디케어

#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컷시티에 위치한 카페에서 금/토/일 주방에서 뒷일 하실분 구합니다.  
443-386-051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세탁소/이미용/기타

폴/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골든 듀보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집합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터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 싱글/타운방 렌트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룸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중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팔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 하나 (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요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ing Specialist :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customer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patronizing habits. 40 hours/week. Master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Blue Bell Inc. dba Pure in Heart Nail Boutique at 700 O St NW, Washington, DC 20001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녀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폴/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애난데일 신선 설령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폴&파타임)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  
아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아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임,  
캐슈페이 가능  
571-352-4938/ Chime.v@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6월4일수요일

중앙일보

▶▶92치킨과함께창업하실분을찾습니다!같이성공하는길을갑시다.  
703-901-1004

제빵기술자구합니다.리치몬드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버지니아이발소에서금,토요일일하실분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위치한미용실에서부스렌트,스킨케어를원하시는분구함.  
자세한사항은문자,메세지다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미용실에서리셉션리스트구함(일요일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픽업스토어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DC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픽업/카운터,배강하실분/파/폴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세탁소픽업하실분폴타임메트로3분  
동골분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세탁소픽업스톨에서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수선하실분구함  
페어팩스가버먼트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구함.알렉산드리아지역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메케닉기술  
자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메케닉  
유경험자구함  
571-332-6110

첼트리자동차정비소에서성실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베네프!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정비사구함애난데일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가게맡아하실분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가정집에서베이비시터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 -9시반까지8세,9세아  
이들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태권도사범님구합니다.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구합니다.  
경험있는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우대이중언어구사자  
이력서:hr@firstthco.com  
▶571-549-6789

홀케어로프스에서HR, Billing Scheduling  
하실직원분들을구합니다.  
영어가능자환영,영주권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치맥치킨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몸이불편하신시니어분들모십니다.  
-최적의위치·시설 -최고의식사와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일하실성실하고  
꼼꼼하신분.유·무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전기,기계,목공모두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픽업  
폴or파타임유경험자환영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페어팩스Costco뒤타운하우스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학군,  
29/50/66/286 최고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FairCrest타운홈렌트\$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풀린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타운홈\$3,300  
방3, 화3.5, 2car, 전부마루, 주차다수  
SouthCounty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타운홈\$3,500  
방3, 화3.5, 2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타운홈렌트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비엔나역타운홈렌트(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새타운렌트\$3,600 방3, 화  
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타운하우스지하\$1,100  
▶페어팩스싱글홈2층방.  
조지메이슨부근여학생환영.\$10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페어팩스싱글홈렌트\$3,500  
▶703-231-5572

콘도렌트

애난데일H마트근처콘도전체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리모델링, 모든가전  
제품새것, 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새콘도렌트\$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메트로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렌트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66근처  
703-336-3283

페어팩스콘도\$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나무마루, 새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있습니다. 넓은남향Bacony,  
밝고환한집. 880S.F.(넓은사이즈).  
Costco 가까운동네. 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콘도렌트\$1,900 Springfield 애난데일10  
분거리.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화장실, 넓은리빙룸, 큰발코니  
파킹3개충분, 리모델링하여밝고환한집.  
▶703-477-3114

센터빌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리빙룸, H-Mart, Lotte  
Mart가까움, 전용주차장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콘도. 방1, 화1, 새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새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발코니, 밝은리빙룸, 계단없  
는1층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옥튼싱글\$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 센터빌stonegate, 콘도렌트\$2,100  
방2, 화2, 2층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애난데일H마트뒤콘도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유료\$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근처싱글홈방1, 화1, 간단취사  
가능,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입주가능  
571-243-6295

495와395가인접한스프링필드지역조용  
한싱글홈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또는직장인여성환영  
571-286-2439

센터빌타운하우스베이스먼트세놓습니다  
유료\$1,100  
▶301-928-4125

애난데일중심가싱글홈방2렌트, 부엌/화  
장실/입구별도/주차편리  
703-395-4380

페어팩스싱글하우스지하전체렌트  
GMU에서3분거리, 즉시입주가능  
703-658-1117

버크Hmart근처싱글홈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유료\$800 비흡연자, 여성분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한아름에서10분거리에위치한  
조용한단독주택방렌트, 넓은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메시아장으로교회뒤타운홈2층방  
하나렌트, 비흡연자환영  
703-887-5173

센터빌CVS근처깨끗한싱글홈2층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완비여자분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Candem아파트5월, 6월, 7월  
단기서브리스합니다. 방1, 풀베스1, 셰어  
키친, 파킹티켓1, 월\$800  
571-623-0255

애난데일노바근처싱글홈아랫층전체렌  
트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싱글하우스지하전체렌트(버크레이  
크파크앞)부엌, 욕실, 세탁, 가구완비, 즉시  
입주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싱글지하워크아웃(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비엔나전철역근처2분거리  
방1개, 직장인남자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K마트근처싱글하우스방하나렌  
트, 주차넉넉  
703-965-2343

스프링필드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입주가능, 여자분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코스코옆타운하우스베이스먼트  
전체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컷시티롯데에서10분거리타운홈  
이층방세놓음. 가구완비, 인터넷유료  
443-631-7866

스프링필드타운홈2층작은방하나렌트  
교통편리, 여자분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예촌왈타운홈방렌트, 화장실 딸  
린큰방, 직장인, 학생환영, 취사가가능  
703-622-2033

센터빌CVS근처, 타운홈이층작은방하나,  
잠만주무실분, 여성분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H마트근처방하나렌트,  
남자분환영  
571-230-2244

센터빌스톤로드방렌트\$650유틸포함  
703- 474- 9713

첼트리롯데근처싱글하우스위층방세놓음  
남자분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600  
703-678-7833

아난데일예촌근처방지하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즉시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던킨뒤환한오피스콘도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  
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4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애쉬번타운타운하우스매매\$670,000  
▶571-239-6054

1. 맥클린콘도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콘도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매매\$224,900  
800 sqft, 전부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  
티콘도비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교통, RT495/29/50  
2. Ashburn타운하우스2012년  
방3.5, 최고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639,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       |       |
|-------|-------|
| 1 BOX | \$100 |
| 2 BOX | \$200 |
| 3 BOX | \$300 |
| 4 BOX | \$400 |
| 5 BOX | \$500 |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www.junk8282.com

☎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Stafford 싱글하우스 \$71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데크,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Dumfries 타운하우스 \$625,000  
포토백악기 보이는 골프 단지에 위치한새 타운하우스, 방4, 화3.5, 2 Cargage 2022년에 지어진집, 4층 구조, 럭셔리 부엌, 나무마루, Double Deck, 최고급 빌더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매매 \$485,000 밝고 환한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H Mart 가가움  
▶703-813-8949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2.5, 랜트수익 \$3,000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 사업체 매매

2001년부터 에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저 하오니 관

심있는분들은 연락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급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 엔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 중고매매/기타

소니 카메라-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싸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 합니다.(면대면 및Zoom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 ea  
Mix machine 1 ea, 만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론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데크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팅, 히팅 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산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산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달가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폴싱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잉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 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형처리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 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 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가계 다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치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 · 기술력 과 서비스 · 경쟁력 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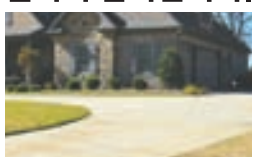
703.965.3011

## 콘크리트 보수 / 유리

###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느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http://www.vapumyang.com) / [va@pumyang.com](mailto: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mailto: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http://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mailto:choyangusa@hotmail.com)

###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지붕 고민 / 돈 걱정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융자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http://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오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ings are looking up: 상황이 나아지다

(Sam is talking to his friend Tom...)

(샘이 친구 탐과 이야기를 나눈다...)

Sam: Tom how's your mother? I heard she had an accident.

샘: 탐. 어머니는 어떠셔? 사고를 당하셨다며.

Tom: She's doing much better.

탐: 훨씬 좋아지셨어.

Sam: What happened?

샘: 어떻게 된 거야?

Tom: She fell at home and hurt her leg.

탐: 집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

Sam: Is she bedridden?

샘: 아직 자리에 누워계시니?

Tom: She was for a week but she's walking around the house now.

탐: 일주일 동안 누워계셨는데 이제 집 안은 걸어 다니셔.

Sam: That's good. 샘: 잘 됐다.

Tom: Yes. Things are looking up.

탐: 응. 차도가 있으셔.

Sam: Let me know if she needs any help with anything.

샘: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한테 말해.

Tom: Thanks. I'll take you up on that.

탐: 고마워. 네 말대로 할게.

주재 병원에 누워있어.)

▶ let me know: 알려줘. 얘기해.

"Let me know if you need to use my lap top computer."

(내 랩 탑 컴퓨터 필요하면 얘기해.)

▶ I'll take you up on that: 네 말대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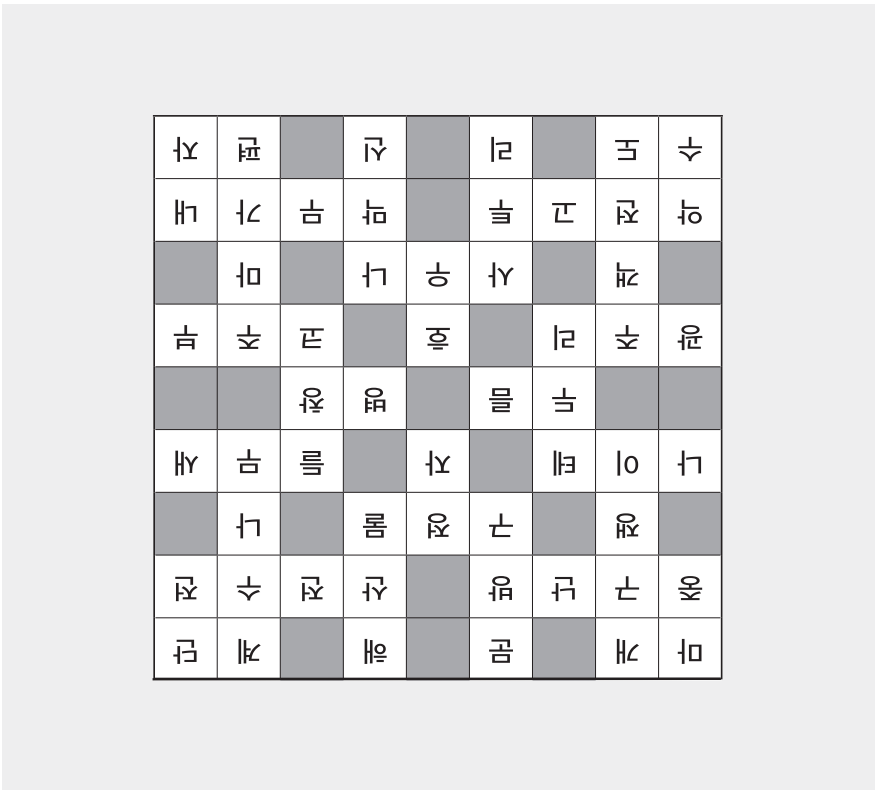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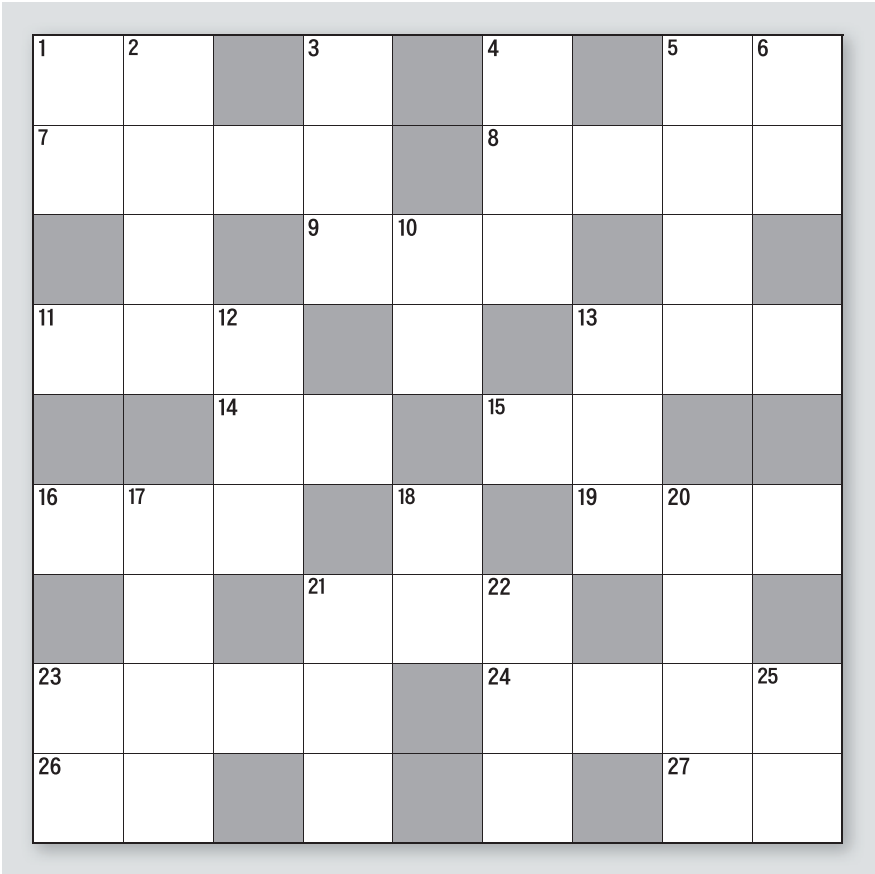
Jim: "I want to buy you lunch on your birthday next week."

(짐: 다음 주 네 생일에 내가 점심 살게.)

Roger: "Thanks. I'll take you up on that."

(라저: 고마워. 네 말대로 하자.)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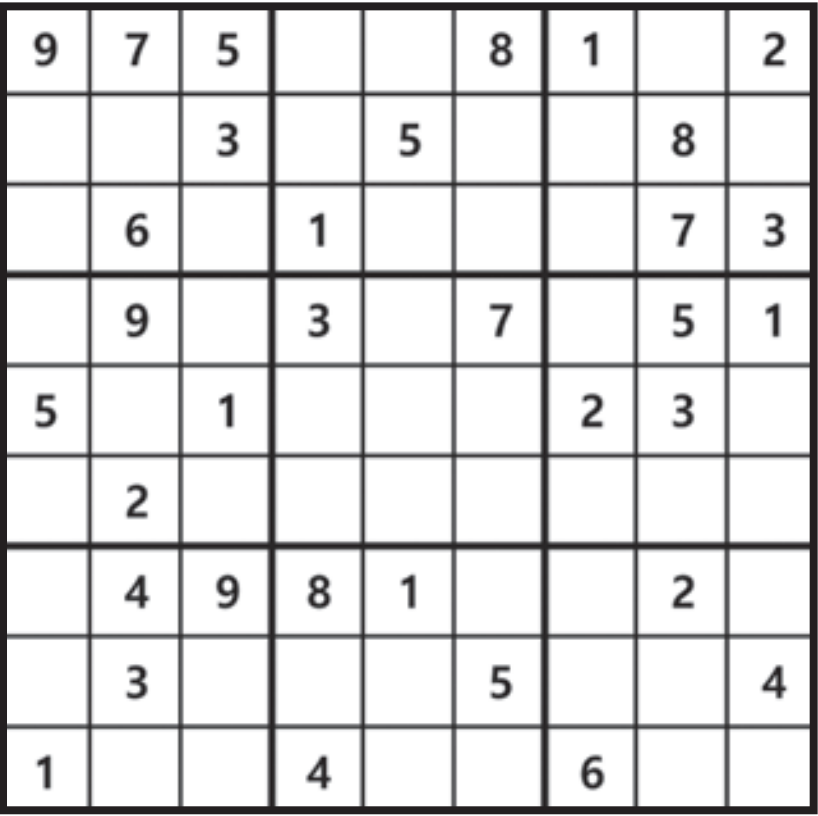
가로열쇠

(1)용기의 이야기나 구멍 등에 끼워 막는 물건 (5)층과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7)못 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려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 □□난□ (8)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음.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음 (9)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11)나무의 줄기나 가지 따위를 가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둥근 데 (13)어떤 일이나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데 쓰이는 물건. 몸을 사리지 않고 남의 굿은일이나 막일을 힘껏 도와줌. 함 안택은 그 마을에서 온갖 일의 ~였다. □□새 (14)물고기나 나물을 쪄 따위로 갈게 엮은 것 (15)가야금 따위의 악기를 타면서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16)대오리나 찌리, 버들 따위로 엮어 만든 그릇. 뒷밭에서 딴 고추가 세 ~나 되었다 (19)코가 큰 사람 (21)핀란드식 증기 목욕 (23)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스럽게 싸우거나 애씀. □□고□ (24)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 □무□□ (26)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27)말굽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의 쇠조각

세로열쇠

(1)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2)심하고 짓궂게 장난을 하는 아이 (3)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파는 곳 (4)바다에서 나는 동식물 (5)옛날 사람들이 달 속에 있다고 상상했던 나무. 푸른 하늘은하수 하얀 쪽배엔/~ 한 나무 토끼 한 마리(윤극영) (6)배꼽 아래로 한 치 다섯 푼 되는 곳. 여기에 힘을 주면 건강과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10)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12)죽 둘러서 친 줄이나 금 또는 장식. 둘레의 가장자리 (13)코끝이 위로 들려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코. 주먹 같은 ~에, 넓죽한 입과 기다란 주걱턱(채만식) (17)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 □객□□ (18)즐거우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 집중 ~ (20)달리는 말에 채찍질함.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 (21)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22)진 땅에서 신토록 나무를 파서 만든 신푼 (23)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 내어 잡는 일. 요즘엔 안 하죠 (25)남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이르는 말. 저의 ~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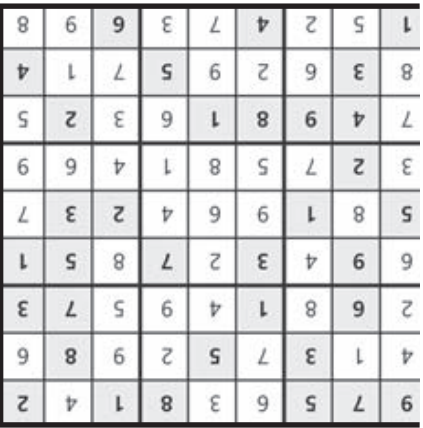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br>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카드 정보 (Card Info)      |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br>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br>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자격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http://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간증문, 목회동기및목회철학, 교회사역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제출처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mailto:hopepnc2025@gmail.com)

접수마감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문의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mailto: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미국 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http://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템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디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권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mailto: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히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를 좋은 근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립니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